

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2-023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

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2-023



아동인권 선임교사_를 위한 안내서₃

Contents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

PART. 1

아동인권 선임교사 이해하기

- | | |
|--------------------|----|
| 1.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사업이해 | 06 |
| 2.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역량 | 07 |

PART. 2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역할

- | | |
|-------------------|----|
| I. 교육 관리 | |
| 1. 자율장학 | 11 |
| 2. 외부교육 나누기 | 17 |
| 3.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관리 | 18 |
| II. 정보 공유 | |
| 1. 아동학대예방 | 19 |
|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 27 |
| III. 기관 연계 | |
| 1. 육아종합지원센터 | 29 |
| 2. 가족센터 | 31 |
| 3.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33 |
| 4. 정신건강복지센터 | 34 |
| 5. 기타 연계 기관 | 35 |

PART. 3

자율장학 자료

-

일과 흐름에 따른
영유아 인권 돌아보기

1. 등·하원 시간

- | | |
|----------------------|----|
| 1) 인사하는 방법은 참 많아요 | 38 |
| 2) 등·하원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 45 |

2. 급·간식과 낮잠 시간

- | | |
|-----------------------|----|
| 1) 급·간식 시간이 즐거워요! | 54 |
| 2) 낮잠 시간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 63 |

3. 바깥놀이 시간

- | | |
|--------------------------|----|
| 1) 바깥놀이를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 74 |
| 2) 안전하고 즐거운 바깥놀이를 하고 싶어요 | 85 |

4. 실내놀이 시간

- | | |
|------------------------|-----|
| 1) 나는 신나게 놀고 싶어요! | 96 |
| 2)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존중해주세요 | 104 |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Part 1.

1부

아동인권 선임교사 이해하기





1.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사업 이해

● 아동인권 선임교사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인권감수성을 갖추고, 영유아 존중을 위한 자율장학 운영 및 정보 공유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추진근거

2022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p. 166~167)

<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운영 >

가. 사업목적

영유아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 개요

- 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대상, 그 외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고함
- 운영방식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교사 지정·운영
- 역할 : 아동학대예방 상담, 학대징후 발견 및 조치 연계,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자체 교육 및 지역별 소그룹 교육 활동에 참여
 - 보육교사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매개체 역할 수행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유기적 관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 아동의 권리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규정·지침서·사례·긍정적 상호작용 방법 등 교육 및 활동에 참석하고 그 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교육 및 안내
 -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 및 교육에 참여, 어린이집 내 자율장학 운영

다. 지정 및 운영방식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명을 아동인권 선임교사로 지정
 - 어린이집에서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1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아동인권 선임교사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업무 수행
- 지역별 선임교사 소그룹교육 활동 및 상담
 - 선임교사는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 및 부모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예방 상담 실시
 - 선임교사는 매 년 1회 이상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하여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보육교직원의 태도를 점검하고 어린이집 내 인권존중 태도 공유

● 선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정보 보호 등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선임교사에게 매월 선임교사수당(10만원 범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어린이집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수당 지급하는 것을 권고
-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 등에 따라, 선임교사의 개인정보 등 보호조치에 유의
- 선임교사는 영유아·부모·보육교사 및 신고인과의 상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2.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역량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을 대표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므로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자기이해

자기이해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객관적으로 자각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내 영유아, 원장, 동료교사, 양육자 등과의 관계 맺음을 이해하고, 동료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인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② 인권에 대한 이해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보육 생활에서 다양한 인권적 가치가 내포되어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영유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다양한 보육 상황에서 인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③ 객관적 통찰력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칫 감정에 매몰되어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사실에 근거하여 예리한 통찰력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객관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④ 전문성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사로서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의 이론과 보육현장의 다양한 경험이 잘 접목되어 동료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2부

Part 2.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역할



•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

본 안내서에서는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원 내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료교사 및 영유아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여 서울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



교육 관리

- 1) 자율장학
- 2) 외부교육 나누기
- 3)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관리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

- 1) 아동학대예방
- 2)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기관 연계

- 1) 육아종합지원센터
- 2) 가족센터
- 3) 아동보호전문기관
- 4) 정신건강복지센터
- 5) 기타 연계 기관

※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어린이집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



자체 평가를 통해 추후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역할과 업무」 수정 · 보완



1. 교육관리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보육교직원의 태도를 점검하고 어린이집 내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 내 보육교직원의 교육을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자율장학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원 내 보육교사들과 함께 도서, 동영상, 자기분석 등을 통해 자율장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율장학

도서, 동영상, 기사, 칼럼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자율장학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의 자료를 찾아 느낀 점, 적용 가능한 점, 나누고 싶은 부분, 새로 알게 된 내용, 공감되었던 부분 등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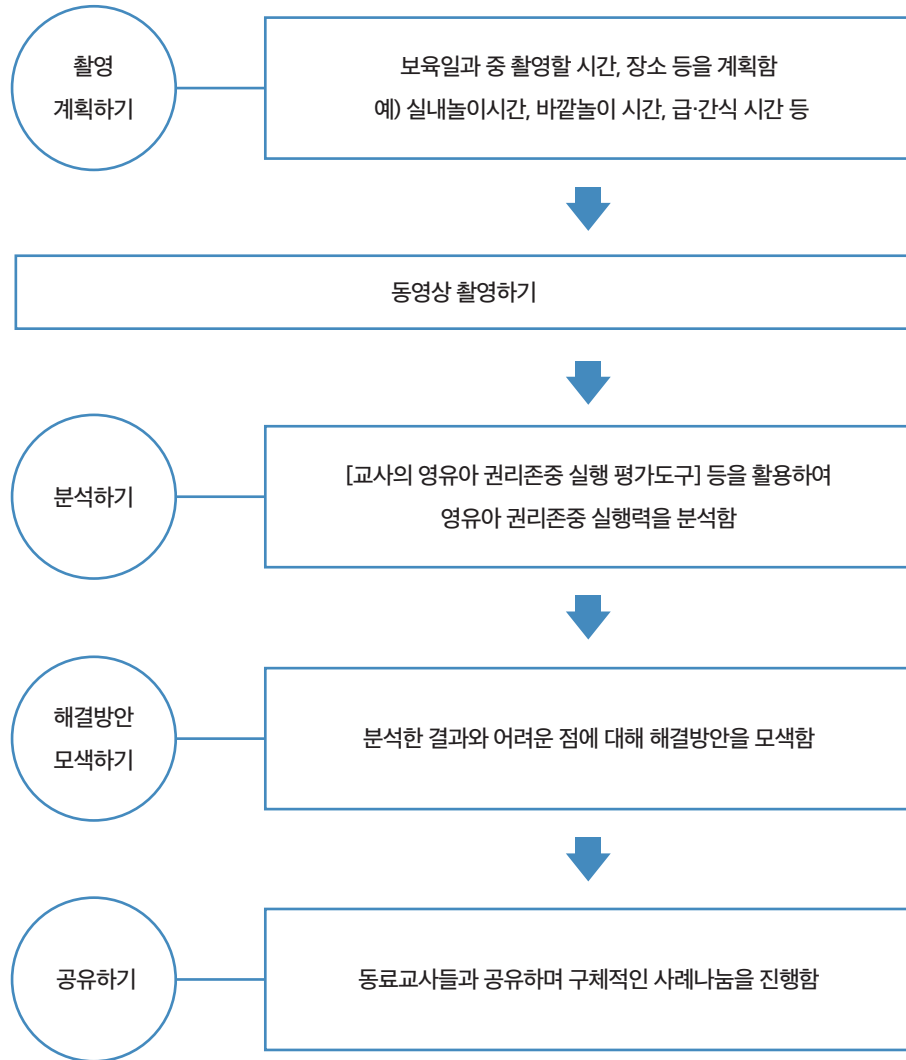
2) 자기분석을 통한 자율장학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사회의 시간이나 별도의 교육시간을 계획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장학을 하고, 영유아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유아를 존중하는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장학은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장학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보육활동과 관련된 실천행위를 스스로 관찰, 분석, 평가해보는 '반성적 저널쓰기',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교사행동을 분석하는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 자신의 보육활동을 관찰하고 분석해보는 '활동사례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분석을 통한 자기장학의 예시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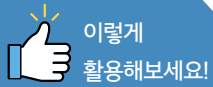
보육교사가 보육일과 중에서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일상생활 지원하고, 교수-학습 지원과정에서의 행동과 태도를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교사의 행동과 태도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놀이시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평가도구¹⁾

영유아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존중 (5문항)	전혀 수행하지 않음	가끔 수행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항상 수행
나는 영유아의 말에 담겨있는 요구, 불편함, 정서 등을 읽는다.	1	2	3	4
나는 영유아가 표현하는 기쁨, 슬픔, 부끄러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에게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존중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 태도, 행동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특성을 알고 존중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의 표현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한다.	1	2	3	4
총점				
영유아 교수-학습 계획과정에서의 권리존중 (8문항)	전혀 수행하지 않음	가끔 수행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항상 수행
나는 짧은 정리시간으로 인해 영유아가 놀이를 중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2	3	4
나는 교실규칙을 영유아들과 함께 정하고 상황에 따라 논의하여 규칙을 바꿀 수 있음을 알려준다.	1	2	3	4
나는 영유아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말하며, 일방적인 설명이나 통제, 지시를 하지 않는다.	1	2	3	4
나는 자유로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정된 흥미영역이 아닌 개방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	1	2	3	4
나는 놀이의 맥락과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내/외 공간을 구성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의 사전 경험과 흥미가 반영된 다양한 자료와 놀이감을 제공한다.	1	2	3	4
나는 변형, 생성, 전개되는 놀이 맥락에 맞게 적절한 환경(교구장 배치이동, 자료제공 등)을 즉각적으로 지원한다.	1	2	3	4
나는 개별 영유아와 교실 전체의 요구 및 흥미 간에 균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예: 이야기나누기, 물리적 공간 재구성 등)	1	2	3	4
총점				
영유아 교수-학습 실행과정에서의 권리존중 (4문항)	전혀 수행하지 않음	가끔 수행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항상 수행
나는 진정한 놀이를 위해 영유아의 자발성, 주도성, 능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나는 일상적으로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과 관심, 흥미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전략 변경 및 창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	2	3	4
나는 놀이 중 일어나는 영유아의 다양한 정서(좌절, 걱정, 신남 등)에 대해 늘 공감해준다.	1	2	3	4
총점				
영유아 교수-학습 평가과정에서의 권리존중 (6문항)	전혀 수행하지 않음	가끔 수행하지 않음	가끔 수행	항상 수행
나는 영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자료 준비, 영유아 놀이와 관련한 활동, 일과에 대한 계획을 일지에 적어 다음날을 준비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지 매일 성찰한다.	1	2	3	4
나는 놀이 실행중이나 후에 영유아의 흥미, 요구, 관심을 반영했는지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매일 기록한다.	1	2	3	4
나는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관찰하여 영유아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급/간식, 낮잠 등) 관찰하여 일지에 기록한다.	1	2	3	4
나는 보육(교육)과정의 방향과 진행을 영유아 및 공동체 구성원(교직원 및 부모)들과 함께 결정하고 있는지 매일 반성한다.	1	2	3	4
나는 일과 운영에 대해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1	2	3	4
총점				

1) 임승렬, 이주영, 이민지(2021),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평가도구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과 권리, 25(4), 491-510



본 체크리스트의 문항은 영역별 영유아권리존중 수행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문항을 체크하며, 어떤 영역과 문항에서 권리존중이 잘 이뤄지고, 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교사 간 자율 장학 모임을 통해 교사들과 좋은 사례와 방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Tip

영역별 권리존중 점수 알아보기

만약 영역별 권리존중 수준을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싶다면, 백분위 점수변환을 통해 영역별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시) (일상생활 영역) 점수: 16점, 총점: 20점

백분위 점수 변환: $16/20 \times 100 = 80\%$

(교수-학습지원계획 영역) 점수: 28점, 총점: 32점

백분위 점수 변환: $28/32 \times 100 = 87\%$

이때 영역별 점수는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체크리스트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영역'과 '어려움이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기점검을 통한 자율장학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를 잘 보육하기 위해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에 건강하게 대처하고,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심리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보육 교직원이 '스트레스 척도' 등으로 심리상태를 자기점검하고 건강한 심리상태로 보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척도(PSS)²⁾

	문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때때로 있음	자주 있음	매우 자주
1	최근 1개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0	1	2	3	4
2	최근 1개월 동안,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0	1	2	3	4
3	최근 1개월 동안,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0	1	2	3	4
4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끼셨습니까?	4	3	2	1	0
5	최근 1개월 동안,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4	3	2	1	0
6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0	1	2	3	4
7	최근 1개월 동안,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4	3	2	1	0
8	최근 1개월 동안,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4	3	2	1	0
9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0	1	2	3	4
10	최근 1개월 동안,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0	1	2	3	4
총점						

점수	결과
12점 이하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13~19점	일반 성인의 평균 이하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업무와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는 업무와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평상시 나의 스트레스를 잘 자각하고 해소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땐 가까운 전문기관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점~25점	일반 성인의 평균 이상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 업무적, 관계적 문제로 인한 주관적 불편감 및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및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6점 이상	일반 성인 기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심리·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까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2) 국립건강센터(2020), 「2020년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p.51



나의 행복회로를 위한 4단계 점검

- 현실치료에서는 'W-D-E-P' 4단계를 통해 '현재 내가 원하는 것'과 '현재 나의 행동'을 떠올려 평가해보고, 나의 욕구충족을 위한 계획을 세움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³⁾

① 1단계 -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 ex) '나는 메이트 교사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길 원함.'

② 2단계 - Doing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 '현재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떠올려봅니다.
- ex) '어색하니까 불편해도 말 안 하고, 의견이 있어도 혹시 꺼끄러워질까봐 메이트 교사 말을 일단 들어주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음.'

③ 3단계 - Evaluation (나의 행동이 내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가?)

- 일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봅니다.
- ex) '말을 안 하다보니 속으로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더 불편해지는데, 정작 메이트 교사는 잘 알지 못함. 그리고 지난번 행사 준비 때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일단 맞춰주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음.'

④ 4단계 - Plan (그렇다면 난 어떤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까?)

-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 ex) · 할 말이 있을 때는 혼자 참지 않고 이야기한다.
· 바로 말하기가 어렵다면 글로 먼저 정리해본 뒤 말한다.
· 말할 땐, 동료교사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들었던 생각과 감정'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 긴장이 돼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10초간 세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 만약 혼자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정서적 불편감이 커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느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외부교육 나누기

아동인권 선임교사가 외부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 학회 등)에 참여한 후, 전달연수를 통해 원 내 보육교직원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합니다.

연간교사교육 계획안에 따라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외부교육에 참석하고 이후에 교사회의 시간 등을 통해 전달 교육을 진행합니다. 외부교육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원 내 보육교직원들과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아동인권 선임교사가 추가 자료를 검색하여 함께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외부교육의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훈육주제 집단상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교육 나누기를 실시합니다.

①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외부교육 일정 다음으로 원 내 모든 보육교직원이 함께 교육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합니다.

②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배부 받은 PPT를 출력하고, 교사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을 워크시트 등으로 정리하여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③ 교육 전달:

<1부. 나를 알고 행복하기>를 통해 보육교사가 자신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나의 특성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2부. 아이와 함께 행복하기>를 통해 바람직한 훈육에 대해 알아보고 반에서 일어났던 영유아 훈육과 관련된 사례를 나누고, [장기적 목표설정, 상황분석하기, 협력하기,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④ 교육 이후, 교직원이 느낀 점, 추후 실천 방향 등을 모색해보도록 합니다.

3) Wubbolding, R. E.; Casstevens, W. J.; Fulkerson, M. H.(2017). Using the WDEP System of Reality Therapy to Support Person-Centered Treatment Planning, AMERICAN COUNSELING ASSOC.,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95 No.4

3.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관리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원 내 모든 교사가 연 1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원내 교사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장과 협의하여 아동학대예방 관련 연간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이를 관리·기록하도록 합니다.

아동학대예방 관련 연간 교사교육 계획안 예시

시기	교육명	내용	참여자
1월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등	전체교사
2월	도서를 활용한 자율 장학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 교육 전에: 도서를 읽은 후, 적용 사례 생각해오기 ⁴⁾	전체교사
3월	인권 주제 자율공부모임	<동화책에 찾아보는 인권이야기> • 교육 전에: 도서를 읽은 후 교육 참여	전체교사
4월	자기분석을 통한 자기장학	00반 수업사례분석: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평가도구	전체교사
5월	아동인권 선임교사 외부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교육	아동인권 선임교사
6월	아동인권 선임교사 외부교육 나누기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를 참고하여 워크샵진행 (주제별 워크시트 활용)	전체교사

※ 원내 행사 및 외부 일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음

4)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http://seou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l.jsp?BBSGB=50&flag=Sl&BID=79029>



II. 정보 공유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원 내 보육교직원에게 공유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예방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보육교직원의 신고의무 및 교육, 아동학대 신고절차 등의 아동학대예방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신고의무자의 역할⁵⁾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ip

신고의무자 역할 및 신고시 주의사항⁶⁾

※ 신고해야 하는 경우 :

- ① 아동에 대한 폭력·방임·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②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③ 보호자 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④ 아동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 ⑤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시급한 경우, ⑥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⑦ 기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⑧ 보육교직원 모니터링 중 아동학대(의심) 행동을 목격하게 된다면, 원장은 즉각적으로 보육교직원을 영유아와 분리시키고 신고 및 보고해야 한다.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혹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원장은 어린이집 실정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주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해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 기계적인 이상과 더불어 부주의한 지도 및 아동학대(의심) 행동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 아동학대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 응급상황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
- 신고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본인도 주의한다.
-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수사에 협조한다.
- (보육교직원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전문가가 상담하도록 한다)

5)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p.77

6) 서울특별시 「2022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p.141

② 신고의무자 보호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16.11월 시행)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④ 교육 기관 및 방법⁷⁾

● 개별교육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에서 출력한 이수증+결과보고서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사이트에 회원가입·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집합교육

-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에서 동영상 신청·다운로드 후 직원들과 함께 교육 이수과 결과보고서

① 영상 화면 사진 1장 ② 교육 참석자가 교육 받고 있는 사진 1장 ③ 교육 참석자 서명

※ 사이트 내 회원가입 없이 콘텐츠 사용신청·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외에 민간·공공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하여도 이수가능 ※ 다만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공공누리표시 필요, 개인이 각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이수해야하므로 집합시청 지양

⑤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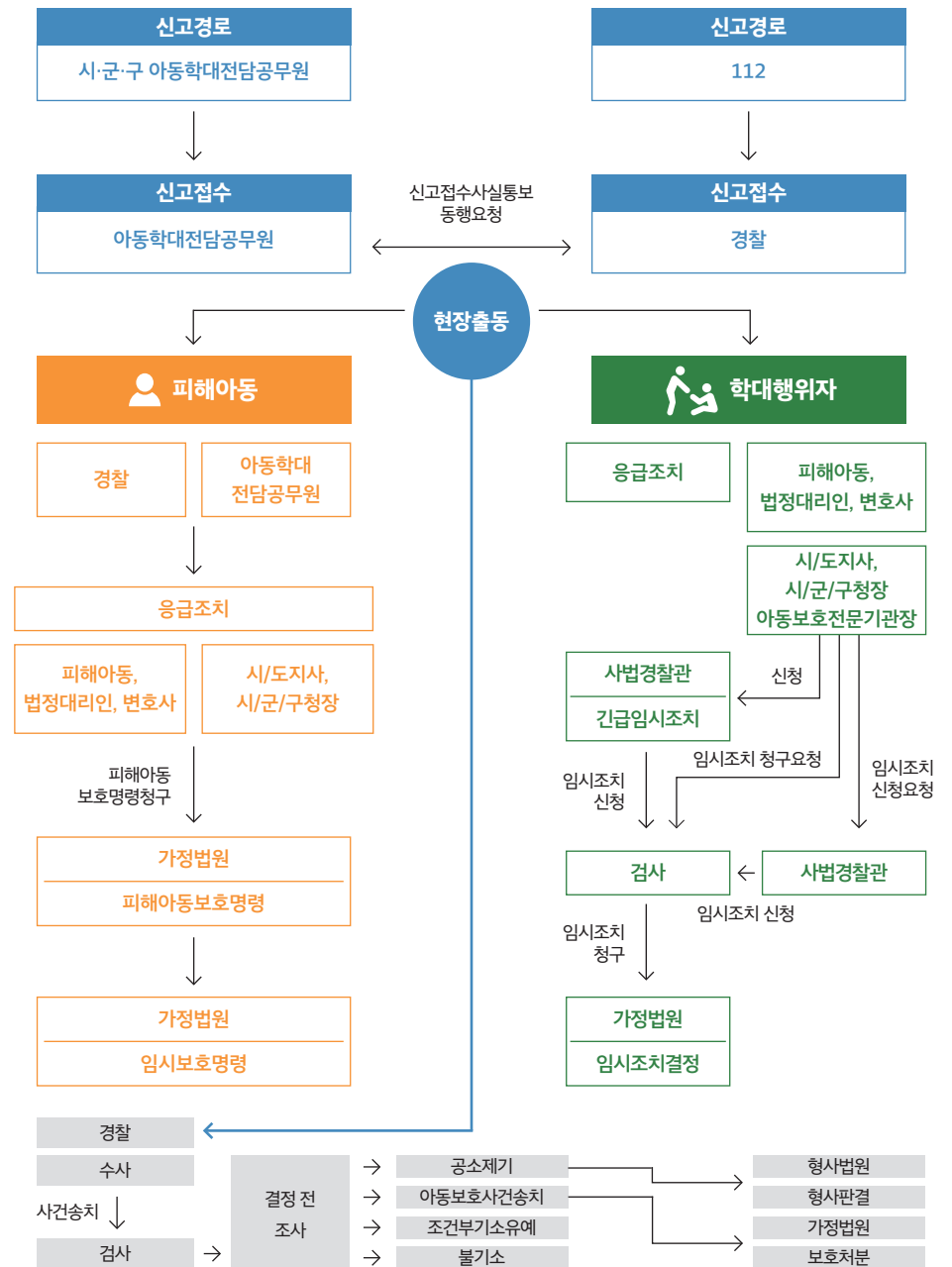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7)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https://iedu.ncrc.or.kr/>) > 교육안내 > 교육방법 안내

(2) 아동학대신고 및 개입절차⁸⁾

1)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 112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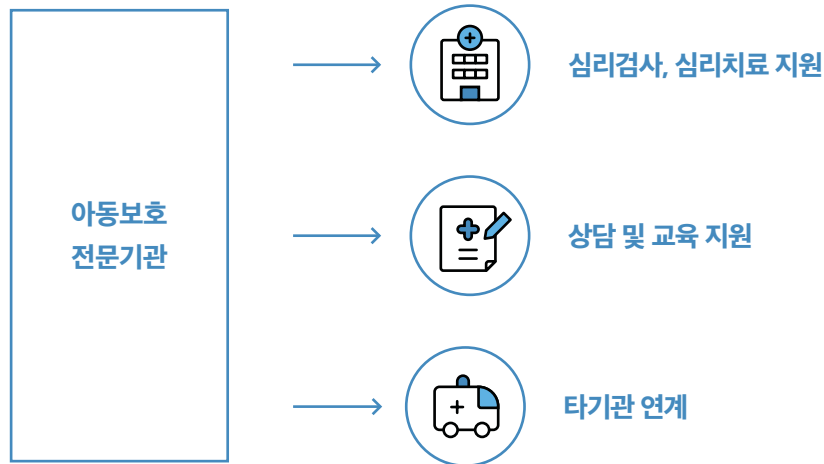
8)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아동학대예방요령」,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조사



사례관리

피해아동·가족 및 학대행위자 대상 지원



2)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조사

① 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12)
-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아동학대 조사 실시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행출동
- 일단 상담 접수 및 타기관 연계



Tip 학대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아동의 현 거주지, 행위자와의 관계 등)를 알려주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됨

② 조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출동
- 경찰 우선/ 동행출동
-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필수 조사, 신고자, 보육/ 교육기관 종사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조사
- 아동학대혐의 판단

③ 피해아동 보호조치

- 피해아동 응급조치
 - 행위자 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격리, 보호시설로 인도, 의료기관으로 인도
- 피해아동 보호명령
 - 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전기통신 제한, 행위자 친권정지, 아동보호위탁, 아동치료위탁, 아동가정위탁, 후견인 권한 제한 및 정지*
 - *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



Tip 피해아동 보호조치

- 아동학대 위험도 및 안전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피해아동 응급조치를 집행합니다.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로 영유아를 인도하며 응급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경찰로 송부하고 응급조치 실시에 따른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⁹⁾을 청구하여 피해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 위탁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치료 및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제도. 학대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 당하고,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친권행사 정지 당하게 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음.



보육교직원이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유의할 점 ¹⁰⁾

● 영유아를 잘 돌봐주기

영유아를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 성적이치 않은 방식으로 안아주고, 달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경험이 있는 영유아 대부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은 아픔, 고통, 다른 형태의 학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영유아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지는 것이 늘 불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정서 연령에 따라 영유아를 돌봐주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연되어 있기 쉽습니다. 영유아는 공포를 느끼거나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에 맞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이러한 영유아를 그들의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정서적 연령과 요구에 맞게 이해하고 돌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 영유아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대화하기

보육교직원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에게 부드럽고 일관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는 교사를 신뢰하고 자기의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 영유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한 영유아가 또래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깨물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방임에 노출된 영유아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따로 숨겨 놓을 경우 이 행동은 음식이 박탈된 때 다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행동을 못하게 막을 경우 이는 영유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육교사 자신을 돌보기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가외의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다면, 이들 영유아의 요구에 일관적이고 예측성 있으며, 풍부하고 지원적인 돌봄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보육교직원도 휴식을 취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④ 학대행위자 조치

● 임시조치

-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행사 제한 및 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구치

● 고소고발

10)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p.84



학대혐의를 받는 보육교직원의 바람직한 대응 태도 ¹¹⁾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에 연루된 보육교직원은 미리 그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조사 공무원 등과 만나는 과정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 초기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 해당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건 조사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사안에 대해 설명한 내용, 사안과 관련이 있는 영유아, 보호자, 다른 보육교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관련된 정보 기록, 목격자 리스트 등을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 가령, '이전에 보호자와 영유아 지도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가 있었는가? 보호자는 영유아가 받는 보육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는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은 필요시 해당 사안에 관련이 있는 동료 보육교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되,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나 진술할 내용에 대해 변경, 삭제, 추가 등의 압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건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내용은 사본 1부를 자신이 보관하고, 사건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내용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사본을 제출합니다.
- 본인의 고용상태와 직무조건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집의 지침에 따라 (무급)휴가를 가야 할 경우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지 등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⑤ 사례관리

● 피해아동

-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 학대행위자

-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 (경제 및 가사지원)등

● 가족

-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등

11)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p.100

⑥ 사후관리

- 사후관리 연계기관결정
- 사후관리 서비스제공모니터링

⑦ 행정처분¹²⁾

-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의 보육담당 부서에서는 CCTV 영상, 가해자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판정 결과와 별도로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보육담당 부서)은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통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1년 이내의 운영정지 혹은 시설폐쇄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5년 이내의 자격정지: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원장),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교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취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을 통해 위반시설*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반 사실의 공표'를 한다.

* 위반시설: 어린이집명, 대표자명, 원장명,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

** 위반행위자: 본인 이름, 법 위반 이력,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



Tip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설치자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감독과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회의 및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면밀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p.97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하기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하기(이하 CCTV)란?¹³⁾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하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1) 열람 및 제공¹⁴⁾

● 열람의 요청

- ① 아동의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는 사유의 경우, 열람절차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 또는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자는 원장에 열람요청서¹⁵⁾ 제출
 - 원장은 10일 이내에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결정통지서¹⁶⁾로 열람요청자에게 통지
 - ※ 즉시 열람 조치: 보호자가 피해사실이 적시된 의사소견서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② 원장과 보호자가 열람 일시를 협의·결정하고 열람 시에는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③ 관계 공무원, 안전업무 수행기관의 열람 요청

- 관계 공무원의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증표로 열람요청서 갈음하여 즉시 열람 조치

● 열람권자 확인

- ① 열람 요청자가 정보주체의 보호자인지의 여부 확인

② 보호자 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입회자

(예: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에 동의한 보육교사, 관계 공무원 등) 여부 확인

● 열람 범위 및 장소

- ①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13)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p. 189~190

14) 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CCTV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p.9

15)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부록」, p.217, 별지 제6호

16)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부록」, p.218, 별지 제7호

② 어린이집 내에서 열람 원칙 준수 및 관리

- CCTV 영상정보 열람대장¹⁷⁾에 작성하여 기록 관리

③ 영상정보는 열람에만 사용되고 영상정보를 열람한 보호자 등이 열람 후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보호자는 열람 전 비밀유지의무 서약서¹⁸⁾ 작성 및 비치

● 자료의 제공 등 제한

① 영상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정보주체 동의, 다른 법률 규정 등)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불가

② 보호자가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 식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마스킹 처리 등) 필요

※ CCTV 열람 중 휴대폰 등으로 모니터를 촬영하여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한 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임

(2) 열람의 거부¹⁹⁾

●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서명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 해야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영유아의 안전 등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III. 기관연계²⁰⁾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및 부모, 영유아를 다양한 기관에 연계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 지원 기관(법 제7조)

(1) 이용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

(2) 서비스 내용

① 영유아 대상

-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영유아 발달 검사

- 아동심리상담(놀이치료, 치료놀이, 미술치료 등), 인지 치료, 언어치료 등

② 부모 대상

-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 온라인 부모 양육 상담 등

③ 보육교직원 대상

- 상담전문요원을 통한 보육교직원 개별 및 집단상담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인권교육 진행

- 서울시 안심상담실 운영을 통한 심리, 노무, 법률 주제 상담

- 아동인권상담전화(1644-9060)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및 기타 상담 진행

-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을 통해 특수교사 현장 방문지원, 치료사 현장 방문지원, 원장 및 교사 교육 등

17)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부록」, p.221, 별지 제10호

18)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부록」, p.225, 별지 제13호

19)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부록」, p.203

20)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 -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p.96~98, <http://seoul.childcare.go.kr/cccf/community/data/DataSJ.jsp?BBSGB=50&flag=SI&BID=79029>

(3) 보육교직원 상담 안내

① 상담전문요원 상담

- 보육교직원 개인상담(1:1상담), 집단상담(훈육,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별 집단상담), 심리검사(심리, 적성, 성격 등) 등을 통한 심리지원
- 서울시 어린이집 인권상담전화(1644-9060)를 통한 부모, 보육교직원 대상 전화상담지원,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실시

②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 서울시 보육교직원 대상 '심리, 노무, 법률' 주제 맞춤 상담 지원
 - 이용시간) (화 ~ 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검색, <http://sctrights.com/>
- 유선신청: 02-772-9813 / 1644-9060 (내선 6번)

번호	센터명	전화	주소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02-701-0431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
2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9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5-16, 1층
3	강남육아종합지원센터	02-546-1736~7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72길 7
4	강동육아종합지원센터	02-486-3556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6길 16 강동어린이회관 1층
5	강북육아종합지원센터	02-994-7480~1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6	강서육아종합지원센터	02-2064-2730~2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2길 50
7	관악육아종합지원센터	02-851-2834~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1(신사동) 관악가족행복센터 4층
8	광진육아종합지원센터	02-467-1827~8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3층
9	구로육아종합지원센터	02-859-5678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구로동지점 3층
10	금천육아종합지원센터	02-894-2264~5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11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02-930-1944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4층
12	도봉육아종합지원센터	02-3494-3341~2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12길 28
13	동대문육아종합지원센터	02-2237-5800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 62
14	동작육아종합지원센터	02-823-456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11 3층
15	마포육아종합지원센터	02-308-0202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71
16	서대문육아종합지원센터	02-3217-9550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31
17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	02-598-934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46 3층
18	성동육아종합지원센터	02-499-5675~6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16길 10-53(행당동)
19	성북육아종합지원센터	02-918-8080~2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10길 19

20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49-0505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21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646-7790~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
22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33-602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
23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749-9673~4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본관 2층
24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351-8932~8941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4
25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737-0890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1길 6-3
26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263-2626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1층
27	종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495-0030~1	서울시 종랑구 망우로67길 10 망우본동종합청사 5층

2. 가족센터

(1) 이용 안내

자치구별 가족센터에 전화 상담신청

(2) 서비스 내용

① 가족교육 및 상담: 가족관계향상, 의사소통방법, 가족구성원 역량강화교육 및 가족구성원 간 갈등, 불화문제,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갈등상담, 이혼전후, 다문화 등 상담

② 다양한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구, 군인가족, 일탈 청소년 등 가족 지원

- 가족역량강화지원: 경제, 심리·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 사회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경험한 위기가족 등 가족단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 공유, 공간마련, 가족품앗이 활동 등 지원
 - 아이돌봄지원: 부모의 출장, 야근,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제공
- ※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순번에 따라 대기 가능, 성인 심리검사는 가능하나 영유아 발달·심리검사는 서비스 불가함

(3) 가족센터 주소

번호	센터명	전화	주소
1	서울시 가족센터	02-318-0227	서울시 중구 소파로4길 6
2	강남구 가족센터	02-3412-2222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
3	강동구 가족센터	02-471-0812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634 3층
4	강북구 가족센터	02-987-256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29길 6(번동)

5	강서구 가족센터	02-2606-2017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6	관악구 가족센터	02-883-9383, 9390	(1센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 3층 (2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가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7	광진구 가족센터	02-458-0622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0길 23 2층
8	구로구 가족센터	02-830-0450	서울시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통합지원센터 2, 3층(가리봉동118-11)
9	금천구 가족센터	02-803-7747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10	노원구 가족센터	02-979-3501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11	도봉구 가족센터	02-995-6800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창5동 303 도봉구민회관 2층)
12	동대문구 가족센터	02-957-0760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6, 7층
13	동작구 가족센터	02-599-3301, 02-599-3260	(1센터)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2,3층 (2센터) 서울시 양녕로25길 60-23, 미소가 8동 302호 (신대방 분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길 42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3층
14	마포구 가족센터	02-3142-5482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오피스빌딩 우측 지하2층
15	서대문구 가족센터	02-322-7595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244
16	서초구 가족센터	02-576-2852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서초구가족센터 4, 5층
17	성동구 가족센터	02-3395-9447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6길 9(홍익동)
18	성북구 가족센터	02-3290-1660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19	송파구 가족센터	02-443-3844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20	양천구 가족센터	02-2065-3400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21	영등포구 가족센터	02-2678-2193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22	용산구 가족센터	02-797-9184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 복합문화센터 3층
23	은평구 가족센터	02-376-3761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24	종로구 가족센터	02-764-3524	서울시 종로구 종로53길 29 주민공동시설 토월 2층
25	중구 가족센터	02-2279-3891	서울시 중구 퇴계로 460-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26	종랑구 가족센터	02-435-4142	서울시 종랑구 용마산로 369

3.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영유아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

피해 아동과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1) 이용 안내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전화상담신청

(2) 서비스 내용

- 사례관리(피해 영유아, 학대행위자, 가족): 심리치료지원, 심리검사, 상담 및 교육, 타 기관 연계 등

(3)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소

지역	기관명	관할구역	전화번호	주소
서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구	02-2040-4242	강남구 광명로34길 124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 중구, 성동, 광진, 종랑구	02-2247-1391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구	02-474-1391	송파구 송이로32길 6 태광빌딩 5층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 양천구	02-3665-5183~5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 종로구	02-3157-1391	은평구 은평로 210 AGM빌딩 4층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 구로, 금천구	02-842-0094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층 407호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 도봉, 강북구	02-923-5440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타운힐, 1층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 서대문, 용산구	02-422-1391	마포구 신수로46, 401호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02-974-1391	노원구 노원로 331, 노원아동복지관 3층

4. 정신건강복지센터

(1) 이용 안내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상담신청

(2) 서비스 내용

- 영유아 및 성인 심리지원(심리검사 및 상담)
- 정신과적 진단 후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연계
- 무료지원 가능하나 센터마다 상이하여 전화 문의

(3)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소

번호	기관명	전화	주소
1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26-0344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00 세곡복합문화센터 2층
2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471-3223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97-5 천호보건소 1층
3	강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985-0222	서울시 삼양로19길 154 강북구보건소분소
4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2600-5926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구보건소
5	관악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879-491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6	광진구정신보건센터	02-450-1895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10 중곡종합건강센터
7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861-2284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60 제중요양병원
8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281-9314	서울시 시흥대로123길 11 5층(독산1동주민센터 건물)
9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116-4591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10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091-5232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도봉구보건소 1층
11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963-1621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81 홍릉문화복지센터 2층
12	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820-4072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53-3 유창빌딩 2층
13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272-4937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성산1동주민센터 3층
14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140-80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보건소 별관 우리들 4층
15	서초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155-8215	서울시 서초구 염곡말길 9 내곡느티나무쉼터 3층
16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98-1080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12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3층
17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41-6314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6층
18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147-5030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 보건지소
19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061-8881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 양천구보건소 지하 1층

20	영등포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2670-479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21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199-8340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구보건분소 2층
22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51-8680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4길 11 보건분소
23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02-745-0199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15길 10
24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36-6606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6길 16 중림종합복지센터 3층
25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422-5921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38

5. 기타 연계 기관

(1)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www.broso.or.kr>)

①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 전화 문의

② 서비스 내용

-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교육·재활지원, 가족지원, 권익옹호, 자립·주거지원에 관련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에 대한 도움 가능
- 발달장애아동 개인별 지원(6세 미만 아동은 장애등록 없이 의사소견서(진단서), 발달 재활서비스 대상자 통지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 및 부모상담·교육 지원

(2) 지역사회 복지관

① 이용안내: 지역사회 복지관에 전화 예약 후 방문

② 서비스 내용

- 아동상담(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 서비스
- 영유아 발달 검사, 심리검사 등 전반적 발달 검사 가능
(복지관마다 상이하므로 전화상담하여 문의)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부

자율장학 자료

[일과 흐름에 따른 영유아 인권 돌아보기]

Part 3.

1. 등·하원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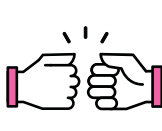
1. 등·하원 시간

1) 인사하는 방법은 참 많아요

인권 문 열기 동작 인사로 웃어봐요.

🔊 우리에게 어떤 인사가 있을까요?

옆에 앉은 선생님과 즐거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동작 인사'를 해보세요.



▶ 준비물: 함께하는 선생님들

▶ 진행 방법:

- ①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육참여자인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인사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 ② 격려와 즐거움, 행복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동작 인사 방법을 고안합니다.
- ③ 아동인권 선임교사와 교육참여자는 함께 소리 내어 숫자(하나, 둘, 셋)를 셉니다.
- ④ 동시에 자신이 고안한 '나만의 동작 인사'를 합니다.
- ⑤ 다양한 동작 인사 중에 '동일 인사 방법'을 표현한 참여자는 게임에서 하차합니다.
- ⑥ 같은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동시에 숫자를 셋까지 세고, '동일 인사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은 게임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인사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 ⑦ 시간 단축 차원에서 인사 방법 예시를 아래와 같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 하이파이브, 하이텐으로 인사할 수도 있어요.
 - 주먹인사도 있고, 외계인 인사인 ET 인사도 있고요.
 - 하트 인사나 윙크 인사도 재밌어요. 밝은 목소리로 두 손만 흔들어도 인사가 되네요.
 - 엉덩이를 맞부딪히는 인사도 재밌겠네요.
 - 악수, 포옹, 크로스,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푹푹딱딱 인사는 어때요.
 - 또 다른 나만의 인사 방법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 ⑧ 나만의 인사를 나누고 전하며,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짧게 2, 3명의 이야기를 공유한 후, 아래 의미 되새기기를 합니다.

▶ 의미 되새기기: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격려되고, 행복해지는 정서적 교류의 시간이 인사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익숙한 인사 방법에서 벗어나 '나만의 인사'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낯설지만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보육교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1) 주제

「어린이집 등·하원 다시 보기」에서 '영유아 의사존중과 참여', '다양한 정보 제공과 자유로운 선택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실천하기

(2) 목표

- 어린이집 등·하원에서 마중과 배웅의 의미를 인식한다.
- 영유아에게 다양한 인사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수용하고 존중한다.
- 영유아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등·하원 방안을 실천한다.

(3) 자료

[인권 문 열기] 준비물(워크시트), [워크시트 1-1], 필기도구

(4) 활동 방법

① 교육 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율장학 실행 전에 어린이집 내 모든 교사에게 교육주제와 일정을 공지하며, [워크시트 1-1]을 참여 인원에게 맞춰 준비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주제 관련 해설 자료를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행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인권 문 열기]를 실행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환기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진행 하에 참여 교사는 준비된 워크시트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내용에 대해 모둠을 정해 토론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모둠별로 발표합니다.
- 어린이집 내에서 인사 방법에 있어 영유아 의사존중과 참여, 자유로운 선택권에 대한 적용 및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③ 교육 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사 간 토론을 통해 도출한 영유아의 의사존중과 참여, 인사 방법에 대해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적용과 실천을 통해 느꼈던 사례를 다음 회기 인권 주제 자율장학 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1-1

「어린이집 등·하원 다시 보기」

어린이집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 시, 영유아 권리 관점으로 인사 방법 다시 보기입니다. 교사로부터 영유아는 자기 의사와 표현이 존중되며, 다양한 인사 방법에 대해 정보가 제공되어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림 1> 강요된 인사



<그림 2> 다양한 인사방법과 선택권

- ❶ <그림 1>과 같이 강요된 인사를 하는 영유아와 교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 ❷ <그림 2>와 같이 스스로 선택한 인사로 어린이집의 하루를 시작(마감)하는 영유아와 교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 ❸ 영유아에게 다양한 인사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영유아 권리 존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❹ 등·하원 시, 영유아의 의사표현과 참여, 자유로운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는 교사의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1) 등·하원 시간, 영유아를 위한 안전관리만으로 충분할까요?

어린이집 하루의 시작과 마감은 등원과 하원입니다. 등·하원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평가제에 제시된 안전관리 내용만으로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지지하는데 충분할까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환한 얼굴로 오늘을 맞고, 내일을 약속하는 영유아의 등·하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때로는 어린이집 현관이 되기도 하고, 보육실 입구가 되기도 합니다(통학버스 이용 시, 버스 승하차 장소). 그곳에서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영유아를 마중하고 배웅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나 평가제에서는 등·하원의 안전 관련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인증을 위한 통과리레 절차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래 관련 자료는 등·하원 시, 영유아를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제2항,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 마목3)²¹⁾

등·하원의 중요성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말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한다는 의미는 아침에 즐겁게 웃으면서 등원하고, 갈 때도 선생님과 즐겁게 인사 나누며 편안해하는 거예요.” 보육교사들의 말에서 ‘어린이집 등·하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피게 됩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다시 보기는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관해 물음을 갖게 합니다. 등원과 하원으로만 얘기될 경우, ‘어린이집으로 출석하는 것 또는 정해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다’의 뜻으로 용어의 주체가 영유아입니다. 반면 마중과 배웅이라는 단어를 덧붙임으로써 주체가 바뀝니다. 마중과 배웅을 해야 할 주체는 바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교사의 준비가 담겨 있습니다. 즐거움, 편안함, 웃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공간입니다. 그 안에 심리·정서·물리적 환경이 존중된 조건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등·하원 시간에 안전관리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의미하며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아래에 마중과 배웅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합니다.

21) 영유아보육법(시행2021.12.9.) [법률제18217호, 2021.6.8.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령 영유아보육법

‘마중’과 ‘배웅’의 사전적 의미

- 마중과 배웅은 뜻이 서로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 마중은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 배웅은 떠나가는 손님을 잠시 따라 나가 작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2) 등·하원은 영유아의 의사존중과 참여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실현되는 장입니다.

① 의사존중과 참여의 가치가 실현되는 시·공간입니다.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 1889~1977)의 명언 중에 ‘웃음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영유아의 웃음 없는 하루도 낭비한 하루이며, 그 영향력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영유아의 웃음은 곧 즐거움이고 행복의 표현입니다. 웃음뿐만 아니라 울음, 손짓, 몸짓, 표정,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 모두가 그들의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권리 주체로 존재합니다. 영유아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으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결정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안에서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지니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읽어주고 귀 기울여주는 권리의무이행자들의 도움이 등·하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영유아에게 웃음과 즐거움, 행복이 살아나는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의 시·공간은 충분조건으로써 영유아 의사존중과 참여를 위한 권리존중 실현의 장입니다.

②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은 영유아가 권리를 누릴 시·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헌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해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영유아 의사존중은 자유로이 견해를 표현할 권리에 대해 어떠한 하한 연령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영유아는 말과 글로 자신의 의사를 소통하기 훨씬 전인 영아기부터 사물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희망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 등·하원 시,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견존중)와 13조(표현의 자유)를 제시합니다.²²⁾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지니며,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22)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발효일 1991.12.20. 다자조약 제1072호 <https://www.law.go.kr/LSW/trtyMInfoP.do?trtySeq=188>

부드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기, 서두르지 말기, 아이들의 행동을 수용하기, 격려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기 등은 영유아에게 각자의 자기 판단과 신념을 존중해 주는 교사의 태도입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교사는 등·하원 시, 인사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자유로운 선택은 영유아의 몫으로 남기는 것이 존중 보육입니다. 그것은 영유아의 자기 주도성과 자율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3) 우리 아이들의 인사, 누구의 기준일까요?

① 배꼽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한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기존에 어린이집 등·하원에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공손한 인사 방법으로 대표되는 배꼽 인사(공수)를 지도하는 모습은 떠오르지 않나요? 일상에서 익숙하게 여겨왔던 인사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두 손을 배꼽 가까이 대고, 고개를 깊게 숙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인사방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른과 영유아들이 예의를 다하여 서로 인사하는 것이 어린이집 등·하원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인사 표현법에 대해 기존 것을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문제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춘 배꼽 인사(공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익숙하고 구태의연한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② 영유아 권리의 지지자이자 옹호자로서 교사와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 말과 행동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나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어린이집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에서 교사에게 요구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표현과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인권적 환경과 조건이 어린 시기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교사와 양육자는 그들의 표현과 견해의 지지자이자 응원하는 옹호자로 자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생활의 강요나 기준이 아닌 좀 더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자기 선택을 위한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기다림이 필요하며, 기다려주는 선생님과 양육자가 즐거운 표정으로 협력자로서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가 다양한 인사법을 알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격려되고 존중되는 분위기 역시 필요합니다.

4) 영유아 존중 실현을 위한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합니다.

① 인사는 상대방과의 또 다른 대화입니다.

인사는 어린이집에서 하루 시작을 여는 첫 만남의 시간이자 마무리 맺음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인사를 통해 서로 친밀감, 유대감을 강화하며 정서적 지지와 우호감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대화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의 따뜻한 시선 ‘눈 맞춤’을 통해 마음의 벽이 먼저 허물어집니다. 규정된 인사나 강요된 인사보다는 교

사가 몸을 낮추고 눈을 마주쳐서 영유아에게 반가움을 전하고, 양팔을 벌리면 아이는 안겨 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귓속말 인사를 나눕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것 또한 금물입니다. 영유아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교사의 기다림과 노력이 우선합니다.

②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 우리 반 친구들과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해요.
- 내일은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지 개별 영유아에게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해요.
- 어린이집 현관 또는 보육실 앞에 다양한 인사 방법을 붙여놓고 선택하게 해요.
- 교사들과도 다양한 인사말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나누어 보아요.



선생님이 먼저 해보는 다양한 인사 방법²³⁾



등원 시 귓속말 인사 (예)

- ○○이 잠 잘 자고 와서 기분은 좋은가 보네
- 오늘 ○○을 첫 번째로 만나서 선생님은 너무 행복해
- ○○가 선생님을 이렇게 사랑해주어서 행복하네
- 오늘 ○○의 웃는 모습은 정말 예쁘구나
- 선생님은 오늘 ○○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 ○○아, 몸이 다 나아 빨리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구나
- ○○야 즐거운 가족여행 보냈었니? 많이 보고 싶었단다
- ○○가 웃는 모습으로 선생님을 반겨줘서 고맙구나



하원 배웅 인사 표현의 (예)

- '○○야 나는 너를 사랑해'
- 이마를 맞대고 눈을 마주쳐 보기
- '엄지척' 인사
- 귓속말 인사
- 포옹 인사

2) 등·하원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인권 문 열기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 눈감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목적지(★)까지 길을 따라가 보세요(길 안내자는 눈감은 상대방이 선을 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설명해주세요).



▶ 준비물: A4용지, 두 가지 색상의 두꺼운 펜

▶ 진행 방법:

- ① 두 명이 짝을 이룹니다.
- ② 길을 설명할 안내자와 목적지를 향해 갈 사람을 정합니다.
- ③ 위 예시의 그림과 같이 목적지가 있는 길을 그립니다.
- ④ 목적지를 향해 갈 사람은 눈을 감은 뒤, 길 안내자의 설명을 잘 들으며 준비한 펜을 시작점(화살표→)을 따라 선을 그으며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합니다.
- ⑤ 다음으로 두 사람의 역할을 서로 바꾼 후, 색상이 다른 펜을 사용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 ⑥ 서로가 그려간 길의 모양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 의미 되새기기:

이 활동은 서로 다른 생각의 서로 다른 생각의 지형도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조직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의 지형도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 교직원, 양육자와 함께 하는 보육공동체,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공동체 내 구성원의 생각에,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있었나요?'

23) 웹진 아이사랑 제53호(2019.3.8.) '아이즐거워요 - 배꼽 인사를 배웠어요' 등·하원 인사 발체 재구성 https://www.i-love.or.kr/zine/index.php?document_srl=59166&mid=sub_joy_사회보장정보원

(1) 주제

「하원 배웅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와 「차량 운행으로 한꺼번에 하원 해요」 유아 사례를 통해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가치 실현과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등·하원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기

(2) 목표

- 영유아에게 즐겁고 행복한 등·하원 시간과 공간을 운영한다.
-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을 통해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가치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실천한다.

(3) 자료

[인권 문 열기] 준비물 (워크시트, A4용지, 두 가지 색상의 두꺼운 펜), [워크시트 1-2], 필기도구

(4) 활동 방법**① 교육 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율장학 실행 전에 어린이집 내 모든 교사에게 교육주제와 일정을 공지하며, [워크시트 1-2]를 참여 인원에 맞춰 준비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주제 관련 해설 자료를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행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인권 문 열기]를 실행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환기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진행 하에 참여 교사는 준비된 워크시트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내용에 대해 모둠을 정해 토론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모둠별로 발표합니다.
- 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 중 적용 가능한 것을 선정하여 실천합니다.

③ 교육 후

- 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한 적용 및 실천 후 자체 점검하고, 적용 전·후 어린이집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 변화에 대해 양육자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마련합니다.
- 관련하여 적용과 실천을 통해 느꼈던 사례와 양육자의 의견에 대해 다음 자율장학 시, 주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1-2

사례 「하원 배웅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와 「차량 운행으로 한꺼번에 하원 해요」를 통해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가치 실현과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등·하원시간이 운영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사례 1**대상 : 만 2세 유아****하원 배웅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에는 하원시간에 특별한 관심 받기를 원하는 지안이와 하루 일과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태희 할머니가 계세요. 어느 날 지안이 아빠가 평소보다 일찍 오는 바람에 지안이 일찍 하원을 하게 됐고, 덩달아 다른 아이의 배웅과 겹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의 하원 시간이 복잡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교사로서 하원 배웅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은 힘들게 됐고, 지안이는 시무룩한 표정이 되었어요. 게다가 태희 할머니의 궁금함은 점점 더 많아져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배웅이 지원되지 못해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례 2**대상 : 만 4세 유아****차량 운행으로 한꺼번에 하원 해요.**

우리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날 즈음, 유아들은 스스로 수첩과 자신이 가져갈 물건을 가방에 챙겨요. 교사는 가방을 메고, 옷을 입고 줄 맞춰 대기하고 있는 유아들을 차량시간에 맞춰 우르르 내보내게 돼요. 안전이 제일 걱정되지만 돌아가면서 차량 지도하는 선생님 도움 아래 하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들의 개별적 욕구나 요구까지 일일이 신경 써 주기 힘들어요.

- ❶ <사례 1, 2> 상황에서 유아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❷ 권리가 존중되는 즐거운 등·하원이 되려면 교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 ❸ 등·하원 시, 우리 반 영유아들의 권리존중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세요.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1) 영유아의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은 개별적이어야 합니다.

영유아가 자라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어린이집은 여러 명의 영유아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집에서 놓치기 쉬운 권리는 ‘개별적 존중’입니다.

어린이집 등원은 애착 대상인 양육자로부터 영유아가 편안하게 분리되고, 하원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양육자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에 등·하원은 보육교사와 양육자의 협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편안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역할은 가정과 같은 친숙한 환경구성, 시간 충분히 주고 기다려주기, 온정적인 신체접촉과 말, 영아의 개별적 속도에 대한 이해, 영유아의 욕구와 흥미, 관심을 수용하고 반응하기, 감정과 정서, 컨디션 살피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유아의 개별적 욕구와 요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개별적 존중이란 ‘모두 똑같이’와 같은 균등이 아닌 개별적 상황과 조건에 따른 권리존중을 의미합니다.

2) 등·하원 시간은 반복되는 일과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바쁜 아침 등원 시간은 교사나 양육자 모두 눈앞에 보이는 거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도 합니다. 조급함이나 불안으로 여유를 찾지 못하게 되면, 어린이집 생활의 시작과 마무리인 등·하원이 즐겁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고, 이는 이후 아이의 더 많은 시간 동안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운 감정은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어떤 일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흐뭇하고 상쾌한 기분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유롭게’란? 영유아가 아무런 억압 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 청취권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양육자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소통입니다.

등·하원 시, 보육교사와 양육자 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일과를 양육자에게 보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때로는 영유아와 진심 어린 하원 배웅이 이루어지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양육자와 소통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와의 소통에 집중하여 아이들과 따뜻하게 개별 소통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등·하원 배웅 시 당사자인 아이를 옆에 두고 교사와 양육자가 영유아에 대해 여과 없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교사와 양육자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다 듣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여러 영유아들이 같은 시간 때에 등·하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은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때로는 인사와 함께 교사에게 전달되는 영유아 관련 정보와 투약 의뢰 등 어린이집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은 교사에게 복잡한 업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영유아들의 등·하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이를 교사가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등·하원 시간 이 이런 경우 첫 번째, 다른 영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등·하원 시간에 영유아들에게 좀 더 집중하여 인사하고, 소통하겠다는 어린이집 차원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홀해질 수 있는 양육자와의 소통창구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사의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시간적 안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개별 영유아들의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은 즐거움과 행복을 지니게 됩니다. 교사와 영유아 그리고 양육자 간의 어린이집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즐거운 만남과 헤어짐이 담겨야 합니다. 세 번째, 개별 영유아에 대한 맞춤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사 간 협력과 업무 배분이 요구됩니다.

5) 어린이집 등·하원에서 좋은 심리·정서·물리적 환경은?

어린이집 등·하원 공간은 영유아들이 참여하는 장소입니다. 각각의 발달을 고려하면서 다양하고 가변성이 있는 환경, 그러면서 안정성과 편안한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상상은 즐겁습니다. 거기에 더해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고, 존중됨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웃음이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은 영유아에게 더욱 좋은 물리적, 정서적 환경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유아의 삶에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가치 실현의 장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배제되거나 제외되는 영유아는 없어야 합니다. 특정 영유아에게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무난한 아이에게는 관심이 덜가 소홀한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차별금지’의 중요한 원칙과 실현에 위배 됩니다. 아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와 2조²⁴⁾의 내용과 의미를 제시합니다.

‘당사국 정부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욕구와 요구가 상반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아동의 이익이 검토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조건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여기서 동등한 권리는 균등의 의미가 아닌 상황과 조건에 따른 맞춤 또는 또 다른 권리로 다가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24)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발효일 1991.12.20, 다자조약 제1072호 <https://www.law.go.kr/LSW/trtyMinfoP.do?trtySeq=188>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결정에 있어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이집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영유아, 교사, 어린이집, 양육자)와 상반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고려되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6) 등·하원 시, 개별적 마중과 배웅을 힘들게 만드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교사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 교사 대 아동의 높은 비율로 인한 개별 영유아를 위한 불충분한 배분과 안배
- 여러 영유아들이 동일시간대 동시에 진행되는 등·하원 시간
- 안전을 위한 지나친 통제
- 양육자로부터 주고받는 영유아에 대한 정보와 길어지는 응대
- 하원 이후 수업 준비 등 많은 업무 수행
- 하원 시, 개별 영유아에 대한 몸차림(머리 빗겨주기)과 옷차림 도움주기 등에 집중

② 어린이집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 물리적 공간으로써 어린이집 현관의 협소와 동 시간대 영유아의 등·하원이 밀려 진행될 경우
- 뻘뻘한 일과운영과 차량 운행시간에 맞춰진 하원 과정
- 등·하원 시, 교사 인력 부족으로 교사 간에 명확한 업무와 역할에 대한 분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영유아보다 부모 중심으로 맞춰진 운영

7) 등·하원 시, 영유아 존중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합니다.

① 교사의 인식 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은 영유아를 위한 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교사의 인식 전환이 우선합니다.
- 같은 반 동료 교사 또는 보조교사 등 어린이집 교사 간에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에 대한 명확한 업무와 역할에 대한 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합니다.
- 양육자를 의식한 영유아에 대한 과도한 일과 보고는 줄이며, 꼭 필요한 경우 따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② 양육자의 인식 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 등원 마중과 하원 배웅은 영유아를 위한 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양육자의 인식 전환이 우선합니다.
- 등·하원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등·하원 마중과 배웅 관련하여 영유아 이익에 최우선이 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를 위한 협의안은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 어린이집 게시판에 즐겁고 행복한 등·하원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게시합니다.

- 양육자가 자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일과 마무리 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따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영아의 경우 대면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도록 함).

③ 어린이집 현관과 보육실 입구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영유아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한 현관 꾸미기나 등원 시, 양육자와 헤어지기 전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예: 책 읽는 공간, 양육자와 간단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For children, With children



하나,

나는 어린이집 일상 속에서 영유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맘을 기울이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가능한 보육환경과 시설, 제도적 지원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입니다.



둘,

“다른 건 좋은 거야. 난, 내 특이한 코가 좋아. 나의 일부분이야.”라고 말하는 한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들듯이, 개별 영유아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며 인정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부

자율장학 자료

[일과 흐름에 따른 영유아 인권 돌아보기]

Part 3.

2. 급·간식과 낮잠 시간





2. 급·간식과 낮잠 시간

1) 급·간식 시간이 즐거워요!

인권 문 열기 몸으로 말해요



▶ **준비물:** 제시어 카드 2세트, 책상 2개

▶ 놀이 방법:

- ① 구성원 한 명 당 하나의 제시어를 카드에 2장씩 씁니다.
- ② 양쪽에 책상을 놓고, 제시어 카드를 양쪽 책상 위에 1세트씩 얹어서 늘어놓습니다.
- ③ 구성원들이 책상 사이에 일렬로 서고, 인원수가 많으면 팀 수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 ④ 오른쪽 맨 끝 사람이 카드 중 하나를 열어보고 몸짓으로만 그 내용을 다음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 ⑤ 왼쪽 맨 끝 사람이 자신이 이해한 제시어를 소리 내어 말합니다.
- ⑥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제시어를 말하여 맞고 틀림을 확인합니다.

▶ 의미 되새기기:

'몸으로 말해요' 놀이는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들이 몸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표정, 움직임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직원, 양육자는 모두 고유한 존재입니다. 이 놀이를 하는 동안 몸으로 말하는 구성원의 몸짓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다를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몸짓언어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1) 주제

'급·간식 시간이 즐거워요'를 통해 급·간식 시간에 나타나는 영유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민감하게 읽고 존중하는 즐거운 급·간식 시간 만들어 보기

(2) 목표

- 급·간식 시간에 나타나는 영유아의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을 인권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 영유아의 의사와 표현을 존중하는 급·간식 시간을 실천한다.

(3) 자료

[인권 문 열기] 준비물(워크시트, 제시어 카드 2세트, 책상 2개), [워크시트 2-1], 필기도구

(4) 활동 방법

① 교육 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율장학 실행 전에 어린이집 내 모든 교사에게 교육주제와 일정을 공지하며, 「제시어 카드」와 해당 [워크시트 2-1]을 참여 인원에게 맞춰 준비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주제 관련 해설 자료를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행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인권 문 열기]를 실행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환기합니다.
- 참여한 교사는 함께 제시된 사례를 읽어봅니다. 제시된 사례나 기관에서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워크시트의 내용을 함께 작성해봅니다.

③ 교육 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사 간 토론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급·간식 시간에 적용하여 영아의 의사와 자기선택권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급·간식 시간에 영아들의 비언어적 표현을 세밀하게 관찰해봅니다.

워크시트 2-1

사랑반은 만 1세 5명의 영아가 함께 생활한다. 교사는 산책을 다녀온 후 영아들의 손을 씻기고 아기의자를 꺼내서 한 명씩 앉히기 시작한다. 교사가 연두색 의자를 꺼내 여름이에게 앉아보자고 하니 여름이는 손가락으로 빨간색 의자를 가르키며 '어! 어!'라고 소리낸다. 교사는 얼른 빨간색 의자를 꺼내 여름이를 앉혔다. 지한이의 눈에는 줄음이 가득하고 저절로 눈이 감긴다. 하민이는 손가락을 빨기 시작한다. 지훈이는 교사가 꺼내준 의자에 앉는다. 교사는 배고프면 손을 빼는 하민이 먼저 식사를 준비해주고 다른 친구들도 서둘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식하였다. 민지는 얼굴을 찡그린 채 버섯불고기 중 고기만 골라먹고 버섯을 먹여줘도 계속 입에 머금고 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여야 튼튼해진다고 말하고 영아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반찬을 이것저것 밥에 올려주며 '냠냠'소리를 내며 빨리 씹어 삼키자고 상호작용한다. 보통 식사지원 시 식사의 절반 정도는 교사가 먹여주고 절반 정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먹도록 식사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여름이와 지훈이가 처음부터 교사가 먹여주던 손가락을 움켜쥔다. '빨리 먹이고 낮잠을 재워야하는데... 처음부터 손가락을 쥐도록 허용해주면 먹는 양은 적고 대부분 흘릴 텐데...' 교사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지훈이는 아침을 먹지 않고 등원했으니 밥을 든든하게 먹여주세요.'라고 부탁한 지훈이 엄마의 말씀에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하겠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교사는 어렵기만 하다.

1 급·간식시간에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자세히 관찰해봅시다.

영아의 표현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나요?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에 담긴 영아의 의도를 생각해 본 후, <워크시트 표 2-1-1>에 기록해 봅시다.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	영아의 의도
빨간 의자를 가리킨다	
저절로 눈이 감긴다	
손가락을 빨다	
얼굴을 찡그린 채 버섯을 입에 계속 머금고 있다	
교사가 든 손가락을 움켜쥔다	

<워크시트 표2-1-1> 사례 속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 읽기

2 <워크시트 표 2-1-1>의 기록을 바탕으로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 읽기에 대해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3 급·간식에 영유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민감하게 읽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급·간식을 즐거운 경험으로 지원하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워크시트 표 2-1-2>를 보면서 세부내용을 점검해봅시다.

환경요인	세부 내용	표시	
		○	×
나 (교사)	① 즐겁게 먹는 것보다 잘(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급·간식을 영아가 경험해야 할 중요한 일과로 보지 않는다.		
	③ 영아의 의견보다 부모의 요구에 따른다.		
	④ 급·간식 시간에 매우 힘들고 지친다.		
가정	① 부모가 급·간식을 무조건 충분히 먹여달라고 요구한다(가정에서의 요구).		
	② 영아에게 유동식만 먹인다.		
	③ 음식을 양육자가 전적으로 먹여준다.		
	④ 가정에서 음식을 돌아다니며 먹인다.		
어린이집	① 급·간식 시간이 너무 짧다(예: 특별활동이 바로 이어짐).		
	② 보조인력이 부족하다.		
	③ 메뉴의 종류나 제공형태가 영아가 먹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급·간식 관련 양육자의 요구를 우선 수용하라고 요구한다		

<워크시트 표2-1-2> 급·간식 관련 환경요인 점검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급·간식과 낮잠시간에도 인권감수성을 유지하며 영유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급·간식과 낮잠은 어린이 집의 일과 중에 교사가 영유아 중심으로 지원하기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일과입니다. 하지만 급·간식 시간은 영유아에게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며 성장과 발달에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각 반마다 급·간식과 낮잠을 즐겁고 편안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 영유아를 살펴보고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영아에게 비언어적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봅시다.

1.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인간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영아는 아직 언어적 표현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냅니다. 청각적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언어적 표현과 달리 비언어적 표현은 시각과 촉각과 같은 감각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영아의 경우,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일과 내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²⁵⁾ 따라서 양육자와 교사는 영아의 얼굴 표정과 눈 마주침, 몸동작을 관찰하고 영아가 어떤 의사소통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양육자나 교사가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민감하게 읽어주고 반응해주는 것은 영아의 의사소통기술 발달에 매우 중요한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아동의 견해 존중) 1항²⁶⁾

아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든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 없이 탐색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표현의 자유) 1항²⁷⁾

먼저, 사례 속 영아의 입장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해봅시다.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	영아의 의도 (예시)
빨간 의자를 가리킨다	“나 저 빨간 의자에 앉고 싶어요.”
저절로 눈이 감긴다	“너무 졸려요. 자고 싶어요.”
손가락을 뺏다	“배가 고파요. 빨리 밥 먹고 싶어요.”
얼굴을 찡그린 채 버섯을 입에 계속 머금고 있다	“버섯의 맛과 향이 불편해요. 먹기 힘들어요.”
교사가 든 손가락을 움켜쥔다	“내가 혼자 먹고 싶어요. 손가락질에 관심이 생겼어요.”

<워크시트 표 2-1-1> 사례 속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 읽기

사례 속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이해할 수 있나요?

-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경우 :

영아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모두 이해했는데도 우리는 왜 영아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나요? 급·간식 시간이나 낮잠 시간에 개별 영아에 대한 개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아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조교사 등 추가인력이 투입될 여지가 있는 지 기관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의 일부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면밀한 관찰을 통해 다양한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읽어봅시다.

25) 안현주, 임부연, 양혜련(2018). 만2세 영아와 교사 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 탐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2), 195-224.

26) 유네스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아동의 견해 존중) 1항, <https://www.unicef.or.kr/>

27) 유네스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표현의 자유) 1항, <https://www.unicef.or.kr/>

■ 영아의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민감하게 읽어 영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의 이해를 돕는 예시 표입니다.

신체부위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	영아의 의도(예시)
눈	눈 마주침: 상대방의 눈을 봄	의사소통 의사가 있어요.
	특정 사람이나 사물을 봄	그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이 있어요.
손	손으로 특정 사물을 가리킴	저것을 주세요. 저것을 보세요.
	친구를 만짐	관심이 있어요.
발	특정 사람 쪽으로 이동함	호감이 있어요.
	문 쪽으로 이동함	문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까치발	자세히 보고 싶어요.
얼굴 표정	웃음, 평온함, 낮빛이 밝음	지금 상태가 좋아요.
	찡그림, 낮빛이 어두움	지금의 상태가 불편해요.

그러나 영아의 몸짓, 표정은 항상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그 상황과 맥락 안에서 파악해야만 정확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즐거운 급·간식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영아는 매일 어린이집에서 급·간식을 먹고 있으며, 특히 우유를 먹는 영아들의 경우 더 많은 시간 동안의 급·간식 경험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급·간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급·간식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음식으로부터 공급받는 의미 있는 시간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영아가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험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명·생존·발달) 1항²⁸⁾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명·생존·발달) 2항²⁹⁾

때로는 급·간식 시간에 음식을 오감으로 탐색해보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급·간식 시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 욕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눈여겨봐 두었다가 다음 놀이 지원계획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 영아가 의견을 말하고 선택할 권리 존중하기

교사가 든 숟가락을 움켜쥐는 영아의 비언어적인 표현은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고 싶다는 영아의 의사표현입니다. 교사는 이를 수용하여 영아의 견해를 존중해주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OO가 숟가락으로 직접 먹어 보고 싶어?”라고 묻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영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도구를 스스로 사용해 보는 경험은 영아의 자조능력을 키워주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3.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워크시트 표 2-1-2>은 ‘0’ 표시가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급·간식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인식과 여건을 개선하거나 가정과의 협력, 어린이집의 구조를 조정하여 영유아의 즐거운 급·간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교사의 인식개선

급·간식 시간은 교사가 일과에 쫓겨 의무적으로 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사인 나는 영유아에게 음식을 빠른 시간 안에 남김없이 다 먹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급·간식 시간에도 놀이시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 스스로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급·간식 시간에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일과 운영을 좀 더 여유 있게 진행하고, 개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영유아가 모든 음식을 잘 먹고 같은 시간에 먹기 시작하여 같은 시간에 먹기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적은 양도 오래오래 천천히 먹고, 어떤 아이는 많은 양인데도 빨리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도 모두 다르

28) 유니세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생명·생존·발달)1항, <https://www.unicef.or.kr/>
29) 유니세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생명·생존·발달)2항, <https://www.unicef.or.kr/>

며, 유난히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생선의 비린 냄새를 꺼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영유아의 특성을 민감하게 수용하고 충분히 존중하는 급·간식 시간으로 운영하자는 생각을 갖고 실천해봅시다.

▶ 가정에서도 영유아를 존중하는 식사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력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음식을 먹이지 않아야 하며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음식의 양, 먹는 속도, 반찬 선택 등에 대한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주고 영유아가 편안하게 식사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가 음식 먹는 속도가 느리다면 빨리 먹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유아는 가정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일관된 편안한 식사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음식을 다 먹여 달라고 하는 등 음식의 양이나 방식 등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변화

교사는 영유아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려 하여도 어린이집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급·간식 시간이 끝나고 특별활동 등 빡빡한 일과가 이어진다면 이것은 급·간식 시간에 교사가 영유아의 마음을 읽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적 요인이 됩니다.

한편, 충분한 바깥놀이로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쬐고, 신체적 활동이 많아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에너지를 소모하여 식욕이 상승하고, 맛있는 식사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일과를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이며, 교사회의, 학습공동체 시간에 영유아의 의사를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 낮잠 시간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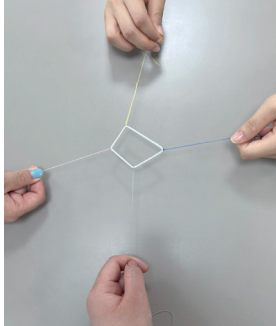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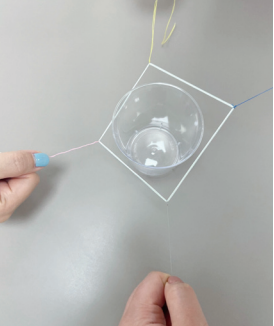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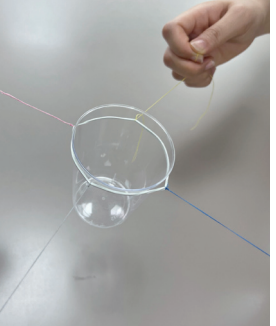
인권 문 열기 서로 마음을 맞춰 컵을 쌓아보아요

🔊: 손으로 직접 컵을 잡지 않아도 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성원 간 아이디어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적용한 놀이를 해봅시다. 아이디어가 선정된 구성원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살펴봄과 함께 컵을 쌓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 준비물: 고무밴드, 컵, 실

▶ 진행 방법:

① 3~4명의 구성원이 팀을 구성합니다.

		
② 팀의 구성원 수대로 고무줄에 실을 길게 맵니다.	③ 구성원은 그 실을 하나씩 잡고 잡아당겨 고무줄을 벌립니다.	④ 벌려진 고무줄로 컵을 잡아 옆으로 옮겨 쌓아 올립니다.

⑤ 구성원 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놀이합니다.

⑥ 놀이 후, 놀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 의미 되새기기:

이 놀이는 구성원 간 하나의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하는 놀이입니다. 놀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생각을 격려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실행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언어적인 표현뿐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까지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 구성원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몸으로 함께 놀이하며 긴장을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1) 주제

낮잠 시간에 영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기

(2) 목표

- 낮잠 시간에 나타나는 영아의 요구/욕구에 대해 살펴보고, 영아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원방식을 알아본다.
- 영아의 낮잠 시간에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을 살펴 본 후 영아의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지원방식을 모색한다.

(3) 자료

[인권 문 열기] 준비물(워크시트, 고무밴드, 컵, 실), [워크시트 2-2], 필기도구

(4) 활동 방법**① 교육 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율장학 이전에 참여 교사에게 인권 주제를 미리 공지하며, [워크시트 2-2]를 참여 인원에게 맞춰 준비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주제 관련 해설 자료를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시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인권 문 열기]를 실행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환기합니다.
- 참여한 교사는 함께 제시된 사례를 읽어봅니다. 제시된 사례나 기관에서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워크시트의 내용을 함께 작성해봅니다.

③ 교육 후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낮잠 시간 영아들의 모습을 관찰해봅니다.
- 교육에서 나눈 지원 방식을 적용해봅니다.

워크시트 2-2

아기다람쥐반은 만 2세반으로 14명의 아이가 두 명의 교사와 함께 생활한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번갈아 실시하게 되어서 5월 초인 지금도 여전히 적응 중인 아이가 많고 안정적인 낮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낮잠을 자려고 이부자리를 준비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수린이, 베개에 올라타서 자동차를 타는 놀이를 하는 가람이, 눈을 마주보고 토닥여주면 뒹굴뒹굴 하다 잠드는 선호, 돌이 장난이 심해도 항상 붙어서 자려고 하는 쌍둥이 민진이와 민주. 민진이는 잠이 안 오는지 눈을 말뚱말뚱 뜨고 있고, 민주는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이들이 어렵게 낮잠에 들면 교실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낮게 흐른다. 하지만, 잠든 지 15분쯤 지난 후 울다 잠든 수린이가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고 나에게 온다. 쌍둥이인 민진이도 30분 정도 자면 일어나 민주를 깨운다. 민진이 엄마는 늘 낮잠을 더 많이 재워달라고 부탁하시지만 민진이는 잠이 짧고 일어나 놀고 싶어 한다. 오늘도 민진이가 깨우자 민주는 졸린 눈으로 일어나 짜증을 낸다. 가람이는 한 시간 정도 후에 일어난다. 선호는 소음에도 개의치 않고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일어난다. 영아마다 모두 다른 낮잠 시간을 개별적으로 민감하게 지원하는 일이 고민이다.

■ 사례 속 낮잠 시간에 나타나는 영아의 모습을 관찰하고 영아들의 요구/욕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름	영아 모습	영아의 요구/욕구
수린	이부자리를 준비하면 울	
가람	베개에 올라타 자동차 놀이함	
선호	뒹굴뒹굴 하다 잠들	
민진	민진이는 민주를 깨움	
민주	졸린 눈으로 일어나 짜증을 냄	

<워크시트 표 2-2-1> 사례 속 영아의 경험 이해하기

2 낮잠 시간에 관찰되는 우리반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영유아의 요구/욕구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름	나타나는 모습	개별 요구/욕구

<워크시트 표 2-2-2> 우리 반 영아들의 낮잠시간 개별 요구/욕구

3 교사가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낮잠을 지원하기 어려운 원인이 될 만한 환경요인을 찾아봅시다.

환경요인	세부 내용	표시	
		○	×
나 (교사)	① 낮잠은 한꺼번에 자고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영아의 다양한 요구에 둔감하다.		
	③ 잠을 자지 않겠다는 영아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④ 나의 체력은 약한 편이다.		
가정	① 평소 영아의 수면시간이 불규칙적이다.		
	② 특별한 스트레스 상황(동생 임신 및 출생 등)이 있다.		
	③ 영아의 욕구보다 낮잠을 얼마만큼 자야 한다는 부모 의견이 강하다.		
	④ 집에서 낮잠 자는 것을 싫어해 잘 재우지 않는다.		
어린이집	①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 너무 많다.		
	② 바깥놀이를 자주 하지 않는다.		
	③ 낮잠환경(채광 및 소음 등)이 적절하지 않거나 공간이 좁은 편이다.		
	④ 낮잠을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워크시트 표 2-2-3> 낮잠지원 관련 환경요인 점검

4 어린이집 윤리강령은 등원부터 하원까지 모든 일과 안에서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대할 때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켜야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윤리강령>을 찾아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나는, 급·간식과 낮잠 시간에도 영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을 1) _____로 존중할 것입니다. 일과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 보다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며, 보육과정 전반에 2) _____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3) _____하게 대하며, 영유아의 바람과 감정이 무엇인지 4) _____ 것입니다.

※ 빈칸의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1) 독립된 인격체 2) 영유아의 이익 3) 평등 4) 항상 귀 기울임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권리를 살펴보고 개별 영아에 대한 개별 지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명·생존·발달) 1항³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명·생존·발달) 2항³¹⁾

● 낮잠 시간에 영아는 고유한 존재로서 존중받고 있나요?

영아는 오늘도 자신의 발달 속도에 따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존재로서의 독특한 특성을 가장 잘 보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나의 지원이 적절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낮잠을 개인적인 특성과 발달 속도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나요?

영아마다 예민한 성향을 가진 아이, 무뎠한 아이 등 각각 고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발달 속도도 모두 다릅니다. 각각의 영아는 자신의 특성과 발달 속도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가 존엄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1. 영아는 왜 낮잠을 자야 할까?

낮잠은 영아의 발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4가지 중 생명·생존과 발달의 원칙은 ‘영유아는 특별히 생명·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³²⁾ 낮잠은 영아의 생명·생존과 발달에 꼭 필요한 일과이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생명·생존과 발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낮잠은 오후 일정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며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편안하게 낮잠을 경험한 영아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온하고 생기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뇌 발달 측면에서 낮잠을 들여다봅시다. 영유아의 뇌 발달은 출생 후 3년 동안 성인의 뇌 발달의 무려 80%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경험과 자극이 제공되어야 뇌는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게 발달하게 되고 이후 인지발달과 정서발달 등의 바탕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져야 영아의 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은 성인의 낮잠과는 다른 발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영아의 뇌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지식과 감정과 정서 등을 기록하여 수많은 뉴런 사이에서 시냅스(연결망)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낮잠은 영아에게 매우 중요한 일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개별성을 존중한 낮잠지원

사례 속 낮잠 시간에 나타나는 영아의 모습을 관찰하고 영아들의 요구/욕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각각 영아의 요구/욕구를 서로 다르게 기술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의견을 나눕시다.

이름	영아 모습	영아의 요구/욕구
수린	이부자리를 준비하면 움	낮잠 시간이 두렵다 (불 꺼짐, 마음껏 움직이지 못함, 엄마가 생각남)
가람	베개에 올라타 자동차 놀이함	낮잠을 놀이의 연장으로 경험함
선호	뒹굴뒹굴 하다 잠들	편안하고 안정된 일과로 경험함
민진	민진이는 민주를 깨움	함께 깨어있고 싶음
민주	졸린 눈으로 일어나 짜증을 냄	낮잠을 충분히 잘 수 없어 피곤함

<워크시트 표 2-2-1> 사례 속 영아의 경험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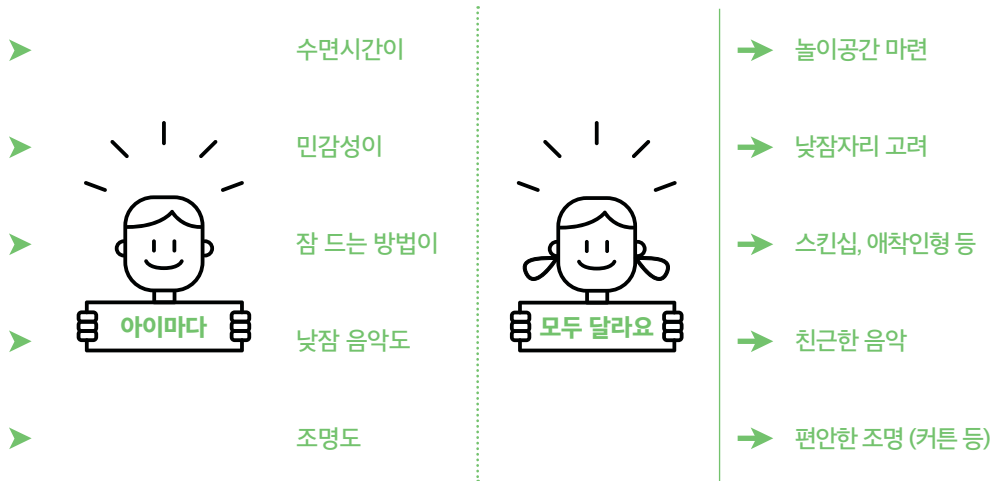
사례와 같이 낮잠 시간에 교실에서는 영아마다 각각 다른 의사표현을 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울거나 떼를 쓰거나 두려움에 찬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개별 영아의 요구를 받는 교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아이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영아는 모두 고유한 존재이고 개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놀이할 때 영아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해주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영아의 개별성³³⁾을 존중한 낮잠지원을 해주세요. 어린이집에서의 모든 경험이 ‘즐거움’으로 인식될 때 아이는 편안하게 일과를 경험하고 마음껏 놀이 할 수 있습니다.³⁴⁾

30) 유니세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아동의 견해 존중) 1항, <https://www.unicef.or.kr/>
 31) 유니세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6조 (생명·생존·발달) 2항, <https://www.unicef.or.kr/>
 32) 김영명 외 (2019).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과 교육 : 영유아의 의사 존중과 의사결정 참여 중심.

33) 박윤자, 이대균. (2012). 영아반의 낮잠시간이 갖는 의미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6(2), 187-214.
 34) 남효정, 유향선. (2020).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한 현장 사례 중심의)영유아 놀이지도.

영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요구/욕구를 살펴보고 <워크시트 표 2-2-2> 낮잠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구성원 간 아이디어를 모아 실천해봅시다.



3.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반 낮잠 상황을 떠올리며 영아의 개별적인 요구/욕구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꼭 재워달라는 부모의 요구와 자고 싶지 않은 영아의 개별적 특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나요? 나는 오후 일과 진행을 위해 점심을 먹고 난 후 바로 낮잠을 재운 적은 없나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워크시트 표 2-2-3>은 '0'표가 많을수록 낮잠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의 인식과 여건을 개선하거나 가정과의 협력, 어린이집의 구도를 조정하여 개별 지원의 낮잠 시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교사차원의 실천

낮잠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는 인식이 약해 '빨리 재우고 영아들의 개별수침에 메시지를 써야지.'라는 마음에 획일적으로 영아들을 재운 적이 있나요? 낮잠은 영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과입니다. 현재 일과가 너무 촘촘하다면 느슨한 일과를 통해 영아가 낮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낮잠을 경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고, 개별적 특성을 파악한 후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지원해봅시다. 교사인 내가 파악한 영아들의 특성에 따라 유난히 불안함을 보이는 영아는 애착인형을 안고 잠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리에 민감한 영아는 교실 안쪽 조용한 곳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빛에 민감한 영아는 커튼을 내려 빛을 차단해 줍니다. 낮잠에서 일찍 깨어난 아이가 있다면 친구들이 자는 동안 그 아이가 놀이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적응중인 영아가 있다면 그 영아가 집에서 잠잘 때 듣는 음악을 기관에서도 들려준다면 좀 더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아존중 낮잠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봅시다.

▶ 가정연계로 가정에서도 편안한 수면지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아가 부모의 스킨십과 따뜻한 대화 등 온정적 태도를 경험하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 내 변화한 환경이 있다면 담임교사와 공유하여 영아의 낮잠지원을 더욱 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과 연계하여 영아가 개별적 특성을 수용한 규칙적인 수면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린이집의 변화

교사가 낮잠지원 시 영유아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고 싶어도 어린이집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촘촘한 일과 때문에 쫓기듯 아이들을 재워야 한다거나 개별 지원을 위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사가 영유아의 마음을 읽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적 요인이 됩니다. 느슨한 일과 유지, 충분한 바깥놀이 시간 확보 등 영아의 편안한 낮잠 제공을 위하여 교사 회의 시간에 논의된 요구사항들을 기관이 수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낮잠 시간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원에 꼭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 어린이집 윤리강령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할 때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집의 모든 일과에 적용되며 특별히 낮잠 시간에 어린이집 윤리강령을 참고하여 낮잠을 지원해 봅시다.

어린이집 윤리강령³⁵⁾

내용
하나, 영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
하나, 보육과정에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하나, 영유아를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
하나, 영유아의 바람과 감정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인다.
하나, 영유아가 보육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하나, 부모가 자신의 양육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협력적 관계에서 보육을 수행한다.
하나, 동료를 공정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존중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 보육업무의 가치에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철학, 지식, 기술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

35)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윤리강령 전문 <https://www.kcpi.or.kr>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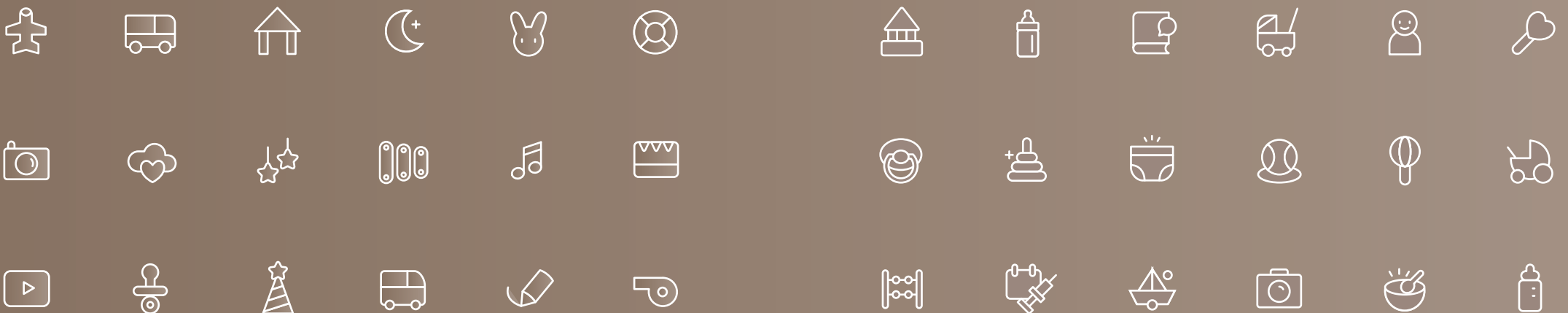
3부

자율장학 자료

[일과 흐름에 따른 영유아 인권 돌아보기]

Part 3.

3. 바깥놀이 시간



3. 바깥놀이 시간

1) 바깥놀이를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인권 문 열기 호감이 가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 호감이 가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찾아보세요^^

A와 B는 얼굴의 일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얼굴에 호감이 느껴지나요?

아래 () 안에 표시하고,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기록하고 설명해 보세요.



A ()

이유 :



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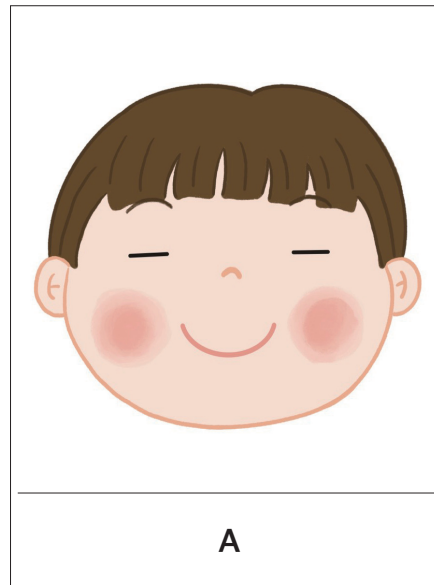
이유 :

▶ 준비물: 워크시트, 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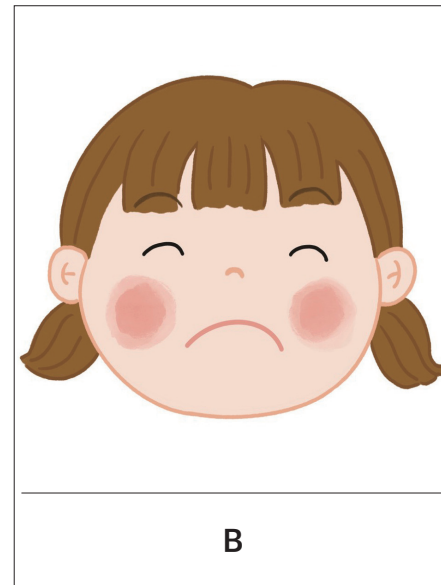
▶ 진행 방법:

- ① '호감이 가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워크시트를 나눠줍니다.
- ② A와 B 중 호감이 가는 얼굴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③ 작성한 내용을 서로 공유합니다.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 ④ 얼굴 전체가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며 자신의 선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 완성된 얼굴 중 어떤 얼굴에 호감이 더 느껴지시나요?



A



B

다음과 같이 얼굴이 완성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얼굴에 호감이 가시나요? A인가요? B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의미 되새기기:

우리는 편견을 갖고 어떤 일을 규정짓거나 결론을 내리는 행동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전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갖고 있던 생각과 관점이 새로운 시도를 할 경우 혼란스럽게 하며 행동을 제한하게 하기도 합니다.

'호감이 가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활동에서 경험했듯이, 바깥놀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며 바깥놀이가 영유아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바깥놀이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관점, 신념)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관점으로 바깥놀이를 생각하고 실행하면 영유아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바깥놀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주제

- 바깥놀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고민을 나누고 바깥놀이에 대한 생각 되짚어보기
-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슬기로운 바깥놀이를 실천하기 위해 바깥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영유아 권리존중 기반의 바깥놀이 실천 다짐하기

(2) 목표

- 바깥놀이를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보육교사의 고민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영유아가 경험해야 하는 바깥놀이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안다.
-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바깥 놀이를 실천한다.

(3) 자료

[인권 문 열기] 준비물(워크시트, 펜), [워크시트 3-1], [워크시트 3-2], 필기도구

(4) 활동 방법

① 교육 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율장학 이전에 참여 교사에게 교육 주제를 미리 공지하며, [워크시트 3-1]과 [워크시트 3-2]를 참여 인원에게 맞춰 준비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주제 관련 해설 자료를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시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인권 문 열기]를 실행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환기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진행 하에 참여교사는 워크시트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바깥놀이의 중요성, 바깥놀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합니다.

③ 교육 후

- 각 반별 바깥놀이를 실천하면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관점으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고 이를 극복한 사례나 고민하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사례를 찾아 기록하여 다음 자율장학 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3-1

바깥놀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깥놀이 상황입니다. 함께 관찰해보세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생각해 봅시다!

바깥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 1, 2, 3, 4, 5]를 보고, 바깥놀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생각해 봅시다.

- ① 아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 ②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 ③ 이 놀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내에서의 놀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워크시트 3-2

“나는 바깥놀이에 대해 이런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 있어요.”

다음의 문항을 읽고 나 자신이 그런 고민이나 행동을 한 적 있다면 YES, 없다면 NO 칸에 체크 해보세요.

구분	나는 바깥놀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 고민이나 행동을 한 적 있어요~	YES	NO
1	바깥놀이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아 힘들어서 나가고 싶지 않은 적이 있다.		
2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이면 바깥놀이 나가지 않아도 되어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다.		
3	밖에 나가고 싶다고 신호를 하거나 나가자고 말하는 아이의 반응에 모른 척한 적 있다.		
4	○○이를 데리고 바깥놀이 나가는 게 어려워서 ○○이가 바깥놀이 시간 이후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5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나가는 게 꺼려진다.		
6	실내에서도 충분히 대근육 놀이를 할 수 있기에 '위험요인이 많은 바깥놀이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7	바깥놀이를 다녀오면 아이들이 더 흥분해서 이후 일과에 방해가 되어 나가기가 꺼려진다.		
8	평가만 아니면 바깥놀이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		

<워크시트 표 3-2-1> 바깥놀이 고민 돌아보기

- 체크한 내용에서 YES와 NO 중 어느 쪽이 많은가요? ()
- 서로의 기록을 공유하며 바깥놀이의 중요성은 알지만 꺼려지는 경험이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 아래 <워크시트 표 3-2-2>를 작성해 보고, 바깥놀이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구분	교사 측면	어린이집 측면	부모 측면
아이들의 기본권인 바깥놀이를 충분히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바깥놀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워크시트 표 3-2-2> 바깥놀이 어려움의 해결방안 생각해보기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워크시트 3-1]의 바깥놀이 사진을 살펴보고 나누며 바깥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들에게 있어서 바깥놀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이들의 권리적 측면에서 바깥놀이에 대해 생각하고 공유하며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활동에서는 교사들이 바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며 바깥놀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들은 바깥에서 자연환경 즉 날씨, 계절변화 등을 경험하며 아이들은 온몸과 마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놀이 장소로서의 바깥 자연환경은 햇빛, 바람, 날씨변화, 계절에 따른 나무의 변화, 흙과 모래 촉감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오감이 열리고 오감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자연은 풍부한 학습의 장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는 등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친구와 함께 나누며 더 재미있는 시도를 하며 지식을 만들어 갑니다. 자연환경은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학습환경이 됩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추웠던 날씨가 따뜻해지며 꽃이 피고 나뭇잎 색깔이 바뀌며 낙엽이 됩니다. 아이들은 같은 바깥환경에서도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아이들은 숲의 바람과 냄새를 느끼며 온몸으로 숨을 쉬며 생명력을 갖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영양분이 모든 자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들의 삶을 존중하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2) 바깥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교사가 계획한 자료를 통해 학습한 것만이 배움이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하고 싶은 데로 노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배움, 즉 성장과 발달은 아이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놀이 경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바깥놀이 환경입니다. 특히 바깥에서는 공간적 제약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풍부해집니다.

밖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온 몸으로 느끼고 움직이며 세상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호기심 거리이고 관심 거리가 됩니다. 자연이 주는 풍부한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 몰입하며,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주도적으로 나와 세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바깥놀이에 나가더라도 교사의 계획된 놀이로 제한하는 등 교사 주도적으로 진행된다면 바깥놀이의 가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바깥놀이의 가치가 실현되어 풍부한 놀이경험이 이루어지려면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관심과 호기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바깥놀이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은 진심으로 웃고 움직이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바깥놀이는 나, 너, 우리 등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나, 너, 우리라는 존재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보육과정을 따르기 위한 바깥놀이 활동’이라는 생각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바깥놀이 활동’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바깥놀이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아이들이 주도하는 도전과 탐험이 인정되는 바깥놀이’를 지원하도록 하며, 그러한 바깥놀이가 실현되는데 나타나는 위험요인과 방해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워크시트 3-2]를 통해 바깥놀이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실천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을 함께 나누며 해결 방안을 논의해 봅니다.

2. 바깥놀이는 왜 어려울까요?

바깥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이를 실천해야 하는 현실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바깥놀이를 나가기 전 어수선한 준비상황, 밖으로 나가 이동할 때 겪는 안전의 위험성, 아이들의 흥분된 상태, 중간 중간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 빨리 가고 싶은 아이와 천천히 가는 아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 등과 같은 바깥놀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상황들로 인해, 교사는 늘 바깥놀이에 대한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교사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지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앞서 아이들이 얻는 바깥놀이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1) 보육교사로서 바깥놀이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해 봅니다.

(1) 바깥놀이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보육교사라면 누구나 바깥놀이를 떠올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상된 적이 있을 겁니다. [워크시트 3-2]는 우리가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 놓으며, 영유아 권리 존중을 기반으로 각자의 관점을 다시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진행 Tip

- <워크시트 표 3-2-1>의 질문에 따라 보육교사로서 고민하거나 행동한 적이 있으면 YES, 그런 적이 없다면 NO에 표시합니다.
- 가능한 작성시간은 교육 상황에 따라 2분 이내로 운영합니다. 교사들이 문항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아닌 평상시 바깥놀이 상황의 어려움을 떠올리며 체크하도록 안내합니다.
- YES로 표시한 개수가 적을수록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바깥놀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수의 많고 적음의 평가가 아닌 바깥놀이를 할 때 어려움과 딜레마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로서 바깥놀이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나의 관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을 들여다보면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바깥놀이를 준비하거나 진행하고자 할 때 자신의 딜레마를 인식하고 그 방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크시트 표 3-2-1>과 <워크시트 표 3-2-2>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나누면서 바깥놀이에 대한 각자 자신의 관점을 점검해 보게 될 것이며 이후 바깥놀이의 중요성과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바깥놀이를 실천하기 위한 생각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바깥놀이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바깥놀이에 대해 <워크시트 표 3-2-1>과 <워크시트 표 3-2-2>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바깥놀이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교사들의 고민을 함께 공감하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잠시 뒤로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교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의 ‘고민 1~7’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교사 입장에서의 어려움

고민 1. 바깥놀이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에너지 소모가 많아 힘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아이, 기다려줘야 하는 아이, 챙겨야 할 준비물 등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나가기 전에 에너지 소모가 많아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해서 나가다 보면 곧 다시 들어와야 할 시간이 되고, 아이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며 갈등상황은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기분 좋게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데 갈등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되어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민 2. 아이들의 개별차가 커서 예측하기 어려운 바깥놀이 활동이 부담이 됩니다.

각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 신체적 발달의 차이, 기질 등 개별차가 커서 특히 바깥환경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깥놀이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기도 합니다. 바깥환경에서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큼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바깥환경에서 즐거움을 갖도록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민 3.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바깥놀이를 자제하게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바깥놀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 자제하게 됩니다. 또한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바깥놀이를 나갈 때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번거롭기도 합니다. 위험부담이 더 커져서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3) 부모 요구로 인한 어려움

고민 4. 아이들이 다치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바깥놀이는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 교사로서 아이들의 놀이를 허용하기 보다는 제한하는 경향이 많아서 아이들과 갈등을 갖게 되어 긴장감이 높아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높은 곳에 오르거나 다가기만 해도 가슴이 뛰며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고민 5. 각 부모님들의 바깥놀이에 대한 생각과 요구가 달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바깥놀이에서 다치거나 옷이나 몸 등이 더러워지면 부모들의 반응에 대응하기가 점점 어렵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일부 부모님은 마음껏 놀도록 해달라며 옷이 지저분해져도 괜찮다고 하지만 다치진 않았어도 막상 옷이 찢기거나 하면 선생님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며 섭섭해하거나 교사의 책임을 묻곤 해서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4) 어린이집 측면에서의 어려움

고민 6. 바깥놀이터까지 이동거리가 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아이들은 각자마다 관심이 달라 이동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하다 호기심이 생긴 아이들을 보면 멈춰서 모두 기다려야 할지, 무시하고 이동해야 할지... 아이들의 관심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부담이 됩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기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 7. 특별활동 시간 때문에 촉박하여 바깥놀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깥놀이 시간, 이동시간, 씻고 정리해야 하는 시간을 서둘러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바깥놀이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을 이야기하다 보면 줄줄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털어내고 공감하는데서 멈추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과 고민은 계속 쌓여만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놀이에 대한 나의 생각의 방향이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했는지 점검해보고 편의성, 효율성, 안전관리 등에 깊이 빠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봅시다. 만약 바깥놀이에 대해 '호기심과 도전'이라는 관점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관점이 충돌을 하게 되면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선택하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이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다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바깥놀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데 교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바깥놀이가 갖는 긍정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들의 바깥놀이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마련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1) 교사 측면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

- 교사들이 함께 바깥놀이의 중요성을 다루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영유아의 권리적 측면에서 바깥놀이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 영유아 발달권과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바깥놀이는 영유아의 발달을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사의 현재 여건들이 바깥놀이를 나가기 불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엇보다 영유아의 이익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좀 더 큰 반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바깥놀이 장소까지 이동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큰 형님이 짝이 되어 이동하면 즐거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2) 어린이집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일과 시간을 느슨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교사들과 협의하여 바깥놀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 특별활동 시간 때문에 바깥놀이 활동 시간을 충분히 운영하기 어렵다면 전체 교사회의를 통해 일과시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해봅니다.
- 바깥놀이의 연계활동을 위해 아이들이 바깥놀이 후 가져온 자연물을 전시하거나 바깥에서 신나게 놀이하는 모습을 부모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특히 영아반의 경우, 바깥놀이를 준비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아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장님 또는 보조교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영위원회를 통해 바깥놀이의 중요성과 발달권에 대해 공유하며, 바깥놀이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모와의 협력 연계하는 방법

- 바깥놀이 관련 부모의 관심이 변화될 수 있도록 바깥놀이의 중요성, 바깥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얻게 되는 이익과 가치 등을 가정통신문, 게시판, 부모교육, 캠페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합니다.
- 부모 대상의 소그룹 워크숍을 진행하여 바깥놀이 관련 관심을 공유합니다.
- 바깥놀이 시, 부모들이 지원 도우미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바깥놀이에서 얻는 경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바깥놀이 관련된 부모참여 수업을 계획하여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경험하도록 하고 바깥놀이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 배움의 기회와 풍성함 등 가치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각 반별 바깥놀이를 실천하면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관점으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고 이를 극복한 사례나 고민하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사례를 찾아 기록하여 다음 자율장학 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안전하고 즐거운 바깥놀이를 하고 싶어요

인권 문 열기 내가 좋아했던 바깥놀이를 알아 맞춰봐~ 빙고게임

▶ 준비물: 워크시트, 펜

▶ 진행 방법:

- ① 내가 좋아했던 바깥놀이 알아 맞춰봐~ 빙고게임 워크시트를 나눠 줍니다.
- ② 게임 방법을 설명합니다.
 - 네모 칸에 바깥놀이 이름(종류)을 모두 기록합니다.(예: 사방치기, 구슬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 모두 작성한 후 한 명씩 돌아가며 한가지씩 바깥놀이 이름을 말합니다.
 - 말한 것과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칸에 X표를 하며 지워나갑니다.
 - 가로, 세로, 대각선 등 4개 줄을 먼저 완성한 교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2줄 정도로 완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내가 좋아했던 바깥놀이 알아 맞춰봐~ 빙고게임을 진행합니다.
- ④ 빙고게임이 끝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바깥놀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추억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⑤ 바깥놀이 경험이 각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해봅니다.

▶ 의미 되새기기:

빙고게임을 통해 어렸을 적 바깥놀이 경험을 떠올려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바깥놀이 경험과 추억을 떠올리며 교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깥놀이에 대한 생각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추억을 떠올리며 바깥놀이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주제

- 영유아 권리존중 기반의 안전한 바깥놀이 실천하기

(2) 목표

- 영유아 권리존중 기반의 안전한 바깥놀이를 실천할 힘을 키운다.

(3) 자료

[인권 문 열기] 준비물(워크시트, 펜), [워크시트 3-3], 필기도구

(4) 활동 방법

① 교육 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육전 참여 교사에게 교육주제와 일정을 공지하며, [워크시트 3-3]을 참여 인원에게 맞게 준비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주제 관련 해설 자료를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시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인권 문 열기]를 실행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환기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진행 하에 참여 교사는 워크시트의 상황을 읽어봅니다.
- 각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작성합니다.
-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각자 발표하며 그 생각을 공유합니다.
- 교육 실행 후 안전한 바깥놀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③ 교육 후

- 각 반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거나 침해하는 다양한 바깥놀이의 사례를 점검하고 다음 모임에서 논의합니다.

워크시트 3-3

바깥놀이 상황 중 다음 장면이 발생할 경우,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만 2세반 14명 영아들과 교사 2명이 함께 하는 바깥놀이 상황입니다.



1) 상황 A

바깥놀이 이동 시 두 줄로 차례차례 줄 서서 가요~

바깥놀이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두 줄로 서서 친구의 손을 잡고 차례차례 걸어갑니다. 교사는 앞에서 줄을 맞추도록 손짓을 하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때 길 중앙에 비둘기 3~4마리가 내려앉더니 먹이를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비둘기다”라고 말하며 친구 손을 끌어당기며 비둘기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교사는 줄에서 벗어난 아이들에게 “안 돼. 어서 제자리로 오세요. 줄 서야지.”하며 아이들을 불러 다시 줄서기에 합류시킵니다.



2) 상황 B

모둠별 활동 할 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바깥놀이 장소에 도착하여 모둠별 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둠 1은 나뭇잎으로 천에 장식하기, 모둠 2는 자연물을 가지고 음식만들기, 모둠 3은 흙놀이하기입니다. 3~4명의 아이들이 주어진 모둠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둠 1의 준영이가 모둠 영역에서 벗어나 주변을 빙빙 돌아다닙니다. 이때 교사는 “준영아, 다른 데 가면 안돼~” 라며 준영이가 모둠 영역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3) 상황 C

나무꼬챙이는 만지지마~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를 탐색하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태민이가 바닥에서 이것저것을 만지작거리더니 작은 나무꼬챙이로 땅바닥을 긁고, 그림을 그리는 듯하더니, 하나를 집어 들고 일어서서 지휘하듯 휘두르며 뛰어다니는 친구들 뒤를 쫓아 뛰고 있습니다. 이를 본 교사는 태민이에게 “멈춰. 나무꼬챙이는 내려놓으세요!”라고 합니다.



4) 상황 D

경사로 언덕은 위험해! 올라가지마

놀이하는 공간 중 한쪽에 낮은 경사로 언덕이 있습니다. 그 경사로를 민수와 진희가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철수가 이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얘들아, 하지 마! 위험해.”라며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 상황 A, B, C, D 내용을 읽고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이들은
어떤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 논의 후 해설서 90~93p를 함께 읽어봅시다.
- 만약 바뀐 생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 나눠봅시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앞에서 읽어본 [워크시트 3-3]은 바깥놀이가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깥놀이에 나간 이후에도 교사들의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과 아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교사는 긴장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제와 규제를 하게 됩니다. 교사로서 적절한 통제와 규제를 한다고 생각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바깥에서 자유로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음껏 시도하고 움직이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매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이 됩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위험요인이 걱정되고, 위험을 제거하며 안전한 놀이를 강조하다 보면 점점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고 맙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발달권 등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바깥놀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을까요?

1. 지나친 안전관리는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바깥놀이가 주는 유익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며 바깥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요인이 교사들의 바깥놀이 진행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안전이라는 요인은 중요하지만, 때론 '안 돼!', '멈춰!', '만지지 마!', '하지 마' 등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노는데 제한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워크시트에서 제시한 바깥놀이 상황을 살펴보면, 무언가 제한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제한, 규제, 통제 등은 왜 하는 걸까요?

교사의 임무 중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과에서 '안전'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깥이라는 환경에서는 더더욱 '안전'을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교사들은 미리 바깥놀이 환경을 확인하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아이들과 미리 규칙을 이야기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안전한 환경 내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안전하게 즐거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워크시트의 상황에서 나타난 규제, 제한, 통제 등은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가요?
지나친 규제, 제한, 통제 등이 아이들의 발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나요?

바깥놀이 환경에서 교사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상호 충돌되며 딜레마를 겪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사는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 제한, 통제 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과도한

통제가 되어 아이들의 주도적인 탐색, 도전, 즐거움 등의 경험을 방해하여 적극적인 배움의 기회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2. 통제기준은 위험한 상황과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구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안전을 지키며 바깥놀이 활동을 지원해야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늘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기에 바깥환경에서 더 아이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위험요소 때문에 과도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위험한 걸까요? 위험한 상황과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분별하는 기준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 A에서 살펴봅시다. 줄 서서 차례차례 이동하는 모습에서 이탈하는 아이들이 생길 때 안전을 위해 줄 서기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허용된 거리 안에서 자유롭게 탐색하며 걷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지 생각해봅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 통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이동을 줄 서서 가게 하는 것보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주변을 탐색할 기회를 주며 걸어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바르게 줄을 서야만 안전하고, 질서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탐색하며 즐겁게 이동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능력을 키우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B를 살펴보면, 자연환경 즉 다양한 놀이 재료가 있는 넓은 공간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배움의 터전이 됩니다. 상황 B 장면은 소그룹이긴 하지만 계획되어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아이를 제한하는 장면입니다. 교사가 계획한 놀이는 목표를 달성하여 아이들에게 배움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 아이들은 스스로 주도하며 경험할 때 가장 몰입하게 되고 창의적인 배움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계획된 모둠 활동보다는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하고 관심이 있는 활동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둠 활동은 주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모둠 활동 밖에 관심을 보이는 행동에 필요 없는 통제를 하게 되고, 이것이 아이들을 수동적인 학습자로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 C 장면을 살펴보면, 나무고개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만지지 못하게 규제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자연물은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 거리가 될 수 있으며 마음껏 탐색하는 놀이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놀잇감이 될 수 있는 자연물은 아이들이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 때로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안전한 재료 몇 가지만 가지고 놀도록 제한하고 그 외에는 만지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구역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등 아이들에게 놀이 재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랗고 조그만 돌맹이는 안전하고 커다랗고 뾰족한 돌맹이는 위험한가요?, 둥근 나뭇잎은 안전하고 뾰족한 솔잎은 위험한가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흙을 가지고 놀다가 흙을 친구에게 뿌린다면 과연 흙은 위험한 물건일까요? 흙은 만지거나 가지고 노는 재료가 안 되는 걸까요? 안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상황 ⑩ 장면에서도 낮은 경사로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경사로 언덕을 오르고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교사로서 긴장하게 되고 이러한 모험은 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험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성취감을 느끼며 도전하는 것을 즐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은 경사로라면 교사가 가까이 다가가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아이가 높은 경사로를 오르고 싶어 한다면, 먼저 낮은 경사로부터 경험하며 기술을 익히고 점진적으로 높은 경사로를 도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위험하다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면서도 아이들의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인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은 늘 위험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경은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를 아이들 주변 환경에서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울타리로 아이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탐험하고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위험 수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와 통제를 선택하여 아이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연물을 탐색하고 놀이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요인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의 경험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도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권리존중 기반의 안전한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신념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규제와 통제는 아이들의 발달권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와 통제를 최소화하며 아이들의 주도적인 탐색과 도전을 지원해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을 때 영유아 권리존중 기반의 안전한 놀이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교사로서 과도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 바깥환경에서 이동할 때 모든 길에서 줄서기를 해야 하는가?
- 바깥놀이 이동 시 줄에서 벗어나거나 친구와 손잡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가?
- 바깥놀이 시 정해진 놀이 구역이나 모둠 활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가?
- 바깥놀이 시 집단으로 나누어 정해진 탐색 활동만을 하도록 하는가?
- 교사가 제시하는 자연물에만 집중하고 탐색하도록 허용하는가?
- 바깥놀이 환경에서 돌맹이, 흙, 나뭇가지 등 만지거나 가지고 노는 것을 제한하는가?
-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나무 밑동에 올라갔다 뛰어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가?
- 경사로에 아이 혼자서 오르는 것을 제한하는가?

위의 질문에 어느 정도 허용하나요? 교사는 바깥놀이뿐 아니라 모든 일과에서 늘 아이들의 발달권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한 범위에서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지나친 규제를 하고 과도한 집단활동으로 통제를 할수록, 아이들은 자기욕구를 억제하게 되어 반작용으로 이후 더 위험한 행동을 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를 정해서 아이들의 놀이가 확장되고 도전하는데 침해받지 않도록 허용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유로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궁극적으로 바깥놀이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 바깥놀이에서 허용의 범위에 대해서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여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협의 내용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부모에게도 전달하고 공유하여 부모의 인식도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이들과 함께 바깥놀이 규칙을 만들고, 이를 게시하여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어린 영아의 경우는 원 연령 반에서 세운 규칙을 동생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형님들은 진지하게 규칙을 안내할 것이며 그 규칙을 지키며 모범을 보이는 기회가 됩니다.
- 모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쉬운 것부터 연습하며 점진적으로 도전하며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도록 하는 아이에게 낮은 수준부터 차근차근 오르는 기술을 익히게 하며 도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조절하며 안전한 범위에서 도전하며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부

자율장학 자료

[일과 흐름에 따른 영유아 인권 돌아보기]

Part 3.

4. 실내놀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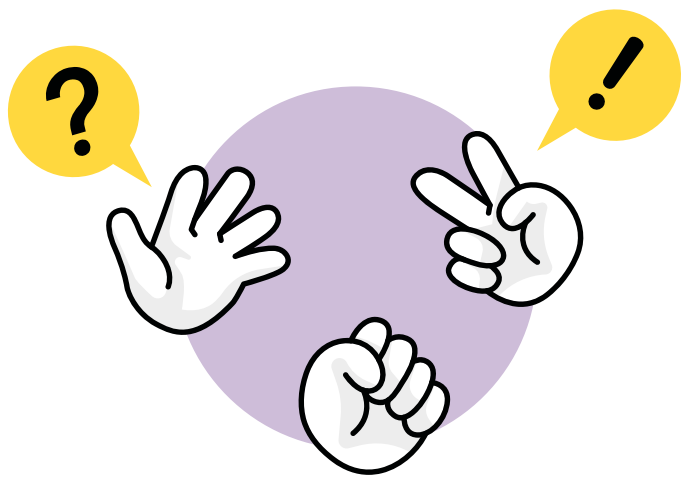




4. 실내놀이 시간

1) 나는 신나게 놀고 싶어요!

인권 문 열기 반대로 가위바위보



▶ 준비물: 함께하는 선생님들

▶ 진행 방법:

- ① 참여 교사 2명이 짝을 지어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 ② 노래(풍당풍당 돌을 던지자)에 맞춰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때, 이긴 사람은 맞잡은 상대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진 사람은 맞지 않기 위해 오른손을 꺾어 막습니다.
- ③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 사람이 치고, 이긴 사람이 막습니다.
- ④ 이를 각각 5번씩 해보고 소감을 나눕니다.
이겼을 때 치는 것과 졌을 때 치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이 더욱 편한지 이야기 나누고,
낮선 방식의 게임을 처음 했을 때와 반복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느껴졌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의미 되새기기:

'반대로 가위바위보'는 기존에 정해져 있던 방식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교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느껴지더라도 반복적으로 시도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주제

실내놀이 시간에 거친 신체놀이를 하는 유아의 사례를 통해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과 놀이지원에 대해 되짚어 보기

(2) 목표

- 영유아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한다.
-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
- 영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욕구를 존중하면서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한다.

(3) 자료

[인권 문 열기] 준비물(워크시트), [워크시트 4-1], 필기도구

(4) 활동 방법

① 교육 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율장학 이전에 참여 교사에게 교육 주제와 일정을 미리 공지하며, [워크시트 4-1]을 참여 인원에게 맞춰 준비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주제 관련 해설 자료를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행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인권 문 열기]를 실행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환기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진행 하에 참여 교사는 제시된 사례나 기관에서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준비된 워크시트를 작성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참여 교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참여 교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해 지지합니다.

③ 교육 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육에서 나온 개입방안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참여 교사가 개입방안에 대한 적용과 실천을 통해 느꼈던 사례를 다음 자율장학 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4-1

구름반 친구들은 좋아하는 놀이가 다 다르다. 지호가 좋아하는 놀이는 의자 위에 올라가 슈퍼맨 놀이하기와 칼싸움, 잡기 놀이를 하는 것이고, 민서는 블록 쌓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지호는 놀 선생님의 감시를 받는 친구이다. 교사는 지호에게 “지호야, 의자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요”, “친구랑 장난치지 않아요”, “교실에서 뛰지 않아요.”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하루는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민서는 블록 쌓기 놀이를 하였고, 한쪽에서는 지호가 주말에 봤던 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장난감 자동차를 이어 붙이고 있다. 옆에는 민준이와 건우도 함께 놀고 있었다.

지호: (자동차를 앞뒤로 크게 굴리면서) 기차 진짜 빨라.

이를 본 교사는 지호에게 다가가 자동차를 크게 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장난감 자동차로 기차를 만들던 민준이는 다른 기차놀이를 제안하였다.

민준: 우리 사람 기차 놀이하자.

민준이가 기차의 가장 앞부분이 되었고, 이어서 건우가 민준이의 허리를 잡으려고 하자 2번째가 하고 싶었던 지호가 건우를 밀쳤다.

건우: 야! 선생님한테 이른다.

민준: 괜찮아? 다음번에는 네가 2번째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하자.

건우: 아 알았어. 이번에는 지호 너 먼저 해.

그렇게 민준이와 지호, 건우의 순서로 서로의 허리를 잡고 기차를 만들었다. 기차는 조금 전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를 피해 요리조리 걸어 다니다가 점점 속도가 불기 시작했다. 기차가 빨라지자 신이 난 지호는 민준이의 허리에서 손을 놓고 교실에서 더 빠르게 달렸다. 신나게 달리기를 하는 지호의 앞에 민서의 블록이 놓여 있었고, 지호는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블록을 발로 차서 무너뜨렸다. 결국, 민서는 울음이 터졌다.

●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 지호는 어떤 아이인가요?
- 교사가 지호의 행동을 제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차놀이를 하는 지호와 민준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지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호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 건우와 민서의 기분은 어떨까요?
-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 지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훈육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이 사례를 영유아 권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봅시다.

● 지호의 거친 신체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워크시트에 제시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주제에 해당하는 실제 영유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 교사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1) 우리는 모두 달라요.

사람은 모두 타고난 성향이 다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줍고 소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 사교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주변을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움직임이 크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게 될까봐 일상생활에서 통제와 금지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문제행동은 단순히 유아의 기질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영유아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구조나 주위의 기대 및 요구 등이 불일치할 때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 개개인의 기질을 파악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영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줄 때 영유아의 문제행동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지호의 공격적 행동을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①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훈육의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영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은 어린이집과 같이 여러 명의 영유아들이 함께 있는 집단생활에선 항상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을 혼내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일부 교사들은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혼내는 것이 훈육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훈육이란 스스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 도리의 ‘기본’을 알려주는 것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경계, 규칙, 안전 등을 배우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육은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를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준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훈육	권리를 존중하는 훈육
●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그 행동을 한 영유아를 꾸짖는다. ● 대안적인 방법으로 행동수정을 위해 체벌을 사용한다. ●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 규칙이나 제한, 기대가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한다. ●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혼낸다. ● 영유아에게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빼앗거나 권리를 상실하게 한다. (예) 돌이 싸우니까 이 자동차 선생님이 가지고 갈 거야. ● 경고나 위협을 하면서 문제행동을 중단시킨다. (예) 한 번만 더 그러면 동생 반으로 보낼 거야.	● 영유아에게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돕는다. ● 영유아와 교사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증진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실천한다. ● 영유아가 기대, 규칙, 제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일관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 협력하기, 도와주기, 상호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기와 같이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한다.

②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시키며 대안도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놀이 상황에서 위협하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일단 공격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공격적인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 행동(예: “지호가 놀이를 하고 싶다고 친구를 밀치거나 발로 찰 수는 없어.”)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부적절한 행동이나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며, 아이의 의도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고 나서 어떤 대체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행동(예: “친구를 밀치는 것보다는 2번째로 하고 싶다고 말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을 알려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목표로 두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방법을 시도해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유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③ 자기조절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은 자율성과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자기조절력은 자기통제력과 정서조절력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규범과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서조절력이 높은 아이들은 화가 나더라도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느끼는 감정과 자극에 대한 감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는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라면 교사는 “그게 화 낼일이니?”라고 하기보다는 “소리를 지를만큼 정말 화가 났구나.”라고 표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적절한 통제와 훈육도 필요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규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 원칙을 바탕으로 사례를 살펴봅시다.

에너지 수준이 높고 동작이 큰 놀이를 좋아하는 지호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고 거친 행동에만 주의를 기울여 놀이를 제재하는 상황에서 지호의 놀 권리와 관련한 생명·생존과 보호, 발달의 원칙, 영유아의 의사 존중의 원칙을 살펴봅시다.

생명·생존과 보호, 발달의 원칙은 영유아가 생존과 보호,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영유아는 온몸의 감각과 기억으로 자연과 세상을 만나고, 놀이를 통해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유아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놀이에 제약을 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발달에 대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지호와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 영유아의 신체적인 놀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영유아 의사 존중의 원칙은 영유아가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가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이 공간의 선택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놀이 규칙의 설정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참여를 존중해주는 것은 의사 존중의 원칙을 토대로 영유아의 놀이권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즉, 영유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놀이 공간의 변화나 놀이에 대한 규칙 설정에 참여하도록 자율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놀이를 만들어가는 영유아에게 놀이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이를 허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4)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봅시다.

거친 신체놀이는 재미를 위해 서로 잡고 뒹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에서는 위험하게 보고, 문제행동과 동일시하여 아이들의 거친 신체놀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거친 신체놀이는 실제로 아이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를 가장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놀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친 신체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에너지 수준이 높고, 활동성이 많은 영유아의 경우 활동적인 놀이 활동을 통해 에너지 분출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친 신체놀이를 제재하기 보다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른 또래들과 놀이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다른 또래의 감정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보는 기회가 된다.
-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부정적인 정서 해소에 도움이 된다.
-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타협하면서 생각과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수 있다.
- 놀이 중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①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바꿔봅시다.

많은 놀이가 이루어지는 보육실은 다양한 영역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 상황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 보육실을 넘어 복도 등의 공용 공간으로의 이동을 융통성 있게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서 영유아가 그 공간에 적합한 방식으로 유능함을 발휘하며 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기는 신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면서 운동능력도 발달시키고 부정적인 감정도 해소하게 됩니다. 실외놀이를 통해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하며 긍정적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내놀이보다 실외놀이를 먼저 함으로써 영유아의 신체적 에너지를 실외놀이 시간에 발산할 수 있도록 일과를 운영하거나 보조교사의 도움을 통해 실내놀이 시간에 시작된 거친 신체놀이를 실외놀이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놀이 영역의 공간을 유아들의 '놀이'에 따라 재조정하기
- 놀이 공간의 크기를 유아의 놀이에 따라 확장, 축소하기
- 놀이 영역의 제한(두 영역의 융합, 책상의 수 늘리기 등)을 두지 않기
- 놀이에 따라 보육실의 책상과 의자를 최소한으로 배치해보기
- 유아에게 놀이 공간 배치의 주도권 주기
- 보육실 외에 다른 공간(복도, 로비, 계단, 강당 등)에서 놀이해 보기
- 실내놀이를 실외 놀이터에서 진행해보기

② 이 놀이의 주인은 우리예요.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이 공간에 대해 교사만이 고민한다면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 공간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 놀이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영유아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놀이 공간과 더 나아가 놀이감에 대해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영유아의 만족도를 높이고, 놀이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③ 실내놀이에서 제한 및 규칙이 필요할 때 어떻게 정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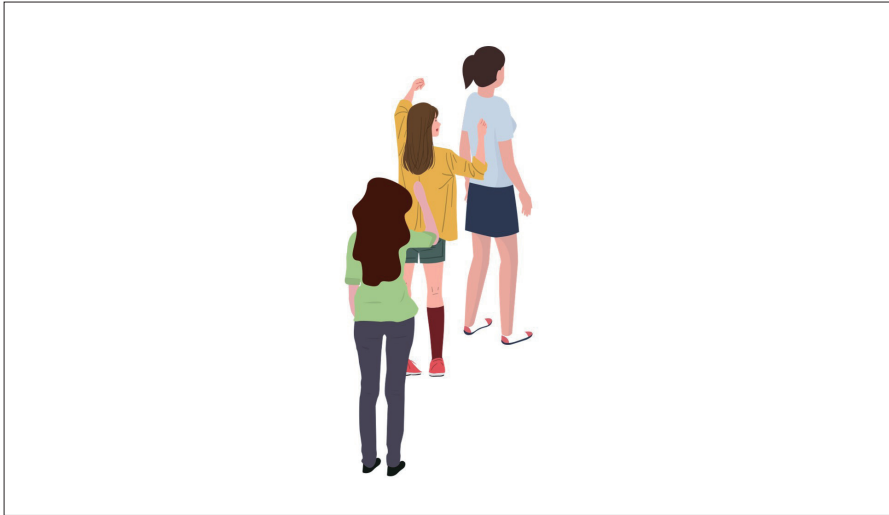
규칙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아이들과 함께 모여 이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같이 설정해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함께 규칙 설정을 하고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영유아들은 스스로 정한 규칙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유아는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갖추게 되며,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영유아들에게 의사 표현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교사는 이를 귀 기울여 들어줌으로써 영유아 의사 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36)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푸르니 놀이책」, 푸르니보육지원재단, 2017, p22. 참고수정.

37) 「놀면서 자란다 유아(3~5세 보육과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0, p24. 참고수정.

2)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존중해주세요

인권 문 열기 등에 그림 그리기



▶ 준비물: A4 용지, 펜

▶ 진행 방법:

- ① 참여 교사 2명이 짝을 지은 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앞사람의 등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교사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림을 종이에 따라 그립니다.
- ② 이번에는 3명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줄로 앉아 맨 뒷사람이 바로 앞사람의 등에 그림을 그리고, 2번째에 앉아 있던 교사는 뒷사람이 등에 그린 그림을 감각으로 느껴 앞사람의 등에 그립니다.
- ③ 다음에는 4명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봅니다.
- ④ 그림을 전달하는 입장과 전달받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누고, 2명이 할 때와 3명, 4명이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 의미 되새기기:

'등에 그림 그리기'는 다른 사람의 표현에 집중하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활동 인원이 늘어나면서 전달되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며, 이를 함께 조율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제

실내놀이 시간에 영아의 욕구와 양육자의 요구가 상충하는 사례를 나누며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원 방식 되짚어 보기

(2) 목표

- 어린이집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의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을 영유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의 연계와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한다.
- 실내놀이 시간에 생명·생존과 보호, 발달의 원칙과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토대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원방식을 실천한다.

(3) 자료

[인권 문 열기] 준비물(워크시트, A4용지, 펜), [워크시트 4-2], 필기도구

(4) 활동 방법

① 교육 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자율장학 이전에 참여 교사에게 교육 주제와 일정을 미리 공지하며, [워크시트 4-2]를 참여 인원에게 맞춰 준비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주제 관련 해설 자료를 미리 읽어보고, 숙지합니다.

② 교육 실행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인권 문 열기]를 실행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환기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진행 하에 참여 교사는 제시된 사례나 기관에서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준비된 워크시트를 작성합니다.
- 아동인권 선임교사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참여 교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참여 교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해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교육 후

-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교육에서 나눈 개입방안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참여 교사가 개입방안에 대한 적용과 실천을 통해 느꼈던 사례를 다음 자율장학 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시트 4-2

김 선생님은 만 1세반 담임 보육교사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의 감각발달을 위해 물감 놀이를 자주 하였다. 하루는 지민이 어머니가 옷이 더럽혀지는 문제로 물감 놀이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김 선생님은 놀이의 중요성과 물감 놀이를 즐겁게 하는 지민이의 반응을 전하며 어머니를 설득하였다.

다음 날 김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물감 놀이를 하게 되었다. 신이 난 지민이는 옷에 물감을 묻히면서 놀이를 계속하다 물감 놀이 이후 여벌 옷으로 갈아입히고 일과를 마무리하였다. 하원 시간에 지민이 어머니에게 옷에 물감이 묻어 갈아입혔음을 전달하였더니 어머니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었지만,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지민이는 자유놀이 시간에 물감 놀이를 하고 싶다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이 떠오른 김 선생님은 지민이에게 오늘은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지민이는 소리 지르고 떼쓰기 시작하였다. 지민이의 반응에 놀란 김 선생님은 지민이가 물감 놀이를 하도록 허락했고 이후 물감 놀이를 못 하게 하려고 하면 지민이의 떼쓰는 행동이 계속되었다.

얼마 동안 물감 놀이는 계속되었고, 지민이의 옷은 몇 번 더 더럽혀졌다. 어느 날 지민이 어머니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린이집으로 전화가 와 아이의 옷이 더러워져 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며 물감 놀이의 횟수를 줄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달라고 하였다. 다음 날 지민이와 다른 아이들은 물감 놀이를 하려고 물감이 있는 곳으로 다갔다. 하지만 전날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이 마음에 걸린 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수요일만 물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물감 놀이를 하지 않아요.”라고 하였다. 물감 놀이를 못 하게 하자 지민이는 이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떼쓰기 시작하였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여기저기 던져버렸다.

이 모습을 본 김 선생님은 가정에서의 요구와 아이의 욕구가 상충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 사례에서 나타난 교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 교사가 물감 놀이를 수요일만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결정을 하기 전 아이의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았나요?
- 실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나요? 그때 어떠한 개입을 하였나요?
- 동료 교사들과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나요?

● 이 사례를 영유아 권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봅시다.

● 아이들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해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워크시트에 제시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주제에 해당하는 실제 영유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 교사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1) 양육자의 요구와 아이들의 욕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입장을 이야기 해봅시다.

교사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이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아동의 이익보다는 성인들의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어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의사 표현을 강하게 하면서 이를 교사가 그대로 수용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가정에서의 요구를 조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교사로서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 그리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하나의 상황을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우리에게 놀 권리가 있어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놀이는 아동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으로, 아이들은 놀면서 자신의 주변 세계와 사물을 탐색하고, 친구를 사귀며 신체 발달 및 정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놀 권리는 단순히 놀이에 대한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를 존중해준다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놀 권리를 존중해준다면, 아이들은 신체적·인지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영유아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둘째, 각 나라 정부는 이러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모든 영유아에게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 원칙을 바탕으로 사례를 살펴봅시다.

어머니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지민이의 물감 놀이를 허용하지 못한 교사의 모습을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살펴 봅시다.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할 때, 그것과 관계되는 여러 입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감 놀이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하여 아이들의 물감 놀이에 제한을 둔 것은 아이들의 이익보다는 부모의 이익이 더 우선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부모의 관점에서 놀이를 바라보고, 그 결과에 초점을 두어 활동을 주저하기보다는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4)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봅시다.

① 교사는 영유아에게 배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4차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에는 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교수·학습은 영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며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교사를 영유아의 놀이 지원자로 제안하고 있다. 교사는 놀이의 특성, 의미, 가치를 이해하여 영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배우는 경험을 지원할 수 있다. 교사는 적절하게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여 영유아가 놀이에 몰입하고 놀이를 확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교사는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토대로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영유아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와 가정의 욕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영유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놀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의 행복을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놀이를 통한 배움이

영유아 시기에 적절한 것임을 부모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보육과정의 주체로서, 부모가 영유아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가 물감 놀이를 하면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배움에 대해 정리하여 알림장이나 소식지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단지 옷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물감 놀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 어린이집에서 신나게 놀이하는 자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부모는 놀이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동반자적 관계이므로 영유아가 행복하게 놀이하는 모습을 부모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영유아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에는 부모의 책임 및 영유아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중요시해야 함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부모를 초대하여 아이들과 함께 물감 놀이를 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의 물감 놀이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부모님과 상호 의존하고 지원하며 동반자로서 연계해 나가는 것은 영유아의 안정적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③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물감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옷에 묻은 물감이 지워지지 않아 물감 놀이를 거부하는 어머니의 요구와 아이들의 놀이 욕구를 함께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감 놀이를 하기 전에 여벌 옷으로 갈아입히거나 앞치마와 팔토시 또는 미술 가운을 입혀 물감 놀이를 하면서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옷에 묻어도 잘 지워지는 물감이나 직접 요거트를 활용한 물감을 만들어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④ 동료 교사와 고민을 나눌 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합니다.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며 적절한 지원 전략을 찾고 실천하다 보면 혼자 해결하기 어렵거나 원 내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서 당면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원장 및 동료 교사들과 함께 상황에 대한 분석, 개인적 견해, 보육교직원 간의 협력 범위, 적절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놀이는 어땠나요?”라는 질문으로 놀이에서 교사의 개입이 괜찮았는지, 교사가 생각하는 놀이지원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점검해 보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영유아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지민이의 떼쓰는 행동에 대해 다루기

영유아의 놀 권리를 지켜주는 것과 더불어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감정 표현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민이가 소리를 지르고 떼쓰는 상황에서 교사는 지민이가 하고 싶었던 물감 놀이를 허용해주었고, 지민이는 여기서 ‘소리 지르고 떼쓰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구나.’를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지민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빨리 혹은 수월하게 얻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떼쓰는 행동을 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행동의 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고 떼쓰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아이를 훈육하기 보다는 그 이면에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민이가 물감 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갈등상황 속에서 소리 지르고 떼쓰는 행동으로 표현된 특정한 감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유아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라면 안아주기, 등 토닥여주기 등의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영유아의 감정을 수용해줄 수 있습니다. “물감 놀이를 못 하게 해서 화가 많이 났구나.”와 같이 영유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반영법을 사용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민이가 물건을 던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화가 나더라도 물건을 던지면 안 돼.”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행동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민이가 자신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문제가 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화났어.”, “기분이 나빠” 등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민이가 소리를 지르고 떼쓰는 행동을 통해 빠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것 대신 적절한 대안 행동을 배우기 위해 반복적인 연습과 정서·인지·언어·행동·사회성 등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지민이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어야 하며,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할 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국립정신건강센터(2020). 2020년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영명 등(2019).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과 교육: 영유아의 의사 존중과 의사결정 참여 중심. 서울: 창지사.

남효정, 유향선(2020).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한 현장 사례 중심의) 영유아 놀이지도. 경기: 어가.

박윤자, 이대균(2012). 영아반의 낮잠시간이 갖는 의미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6(2), 187-2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부록.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https://www.i-love.or.kr>

사회보장정보원(2019). 웹진 아이사랑 제53호. '아이즐거워요 -배꼽 인사를 배웠어요'. 서울: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선생님, 아이, 엄마아빠 함께 배워요.(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서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2022). 2022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

아동권리보장원 <https://iedu.ncrc.or.kr>

인현주, 임부연, 양혜련(2018). 만2세 영아와 교사 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 탐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2), 195-224.

유니세프 <https://www.unicef.or.kr>

임승렬, 이주영, 이민지(2021).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평가도구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과 권리, 25(4), 491-510.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놀면서 자란다 유아(3~5세 보육과정). 서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푸르니보육지원재단(2017).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푸르니 놀이책. 서울: 푸르니보육지원재단.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CCTV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

Wubbolding, R. E., Casstevens, W. J., & Fulkerson, M. H. (2017). Using the WDEP system of Reality Therapy to support person-centered treatment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5(4), 472-477.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

기획·총괄

강희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이필승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보육관리 팀장)

신민경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보육관리팀 주무관)

이남정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경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획·총괄사업팀 팀장)

류혜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집필진

남효정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

성정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사)

양영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권교육 강사)

황인정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기획이사)

감수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발 행 2022년 7월

발 행 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 화 02-772-9814~9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

ISBN: 979-11-85917-74-0 (93370)



비매품/무료

93370



9 791185 917740

ISBN 979-11-85917-74-0